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염 미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신 하 람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염 미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신 하 람


인 준 서

신하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2월

심사위원장 이 지 현 (인) 

심사위원 김 미 영 (인) 

심사위원 영 미 선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오늘날 패션산업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간편하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에 있어 시간과 비용, 기능과 편의가 강화되었으나 이에 따라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와 감성표현을 담은 디자인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작품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패션분야에서는 여러 예술작품들이 패션과 예술이 결합된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작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패션과 예술이 결합된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살바도르 달리, 앤디워홀, 피에트 몬드리안, 구스타프 클림트와 같은 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유럽 미술사를 구성하는 예술사조 중 하나인 아르누보 양식을 이끌었던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의 작품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화려한 장식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르누보 양식의 대가로 불리는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의 회화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의상을 제작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문헌, 학회지,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회

화작품인 포스터, 장식패널, 슬라브 서사시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형태특성, 색채특성, 구도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다양한 형태의 예술회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회화 양식들이 어떠한 형태와 기법을 통해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작품제작은 알폰스 무하의 회화작품 중 뚜렷한 윤곽선과 색채 활용을 통해 만화적 이미지를 보이는 포스터작품 5점과 장식패널 1작품 총 6점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총 4점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작품 총 8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폰스 무하는 세기말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포스터 3대 거장 중 한사람으로서 포스터뿐만 아니라 장식패널 엽서, 달력, 책표지와 같은 모든 회화분야를 아우르며 아르누보 스타일의 환상적인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대중의 눈길을 이끄는 풍부한 장식요소와 소비자들의 내면을 두드리는 상업적 메시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함축성 있게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만의 ‘무하 스타일(Mucha Style)’을 전파하였다. 이와 같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크게 포스터와 장식패널, 슬라브 서사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하의 포스터 작품 84점에 나타난 형태 특성은 무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인물 또는 주제와 이를 표현한 풍부한 장식요소들, 그리고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선의 표현 및 레터링의 활용이 나타났다. 색채 특성의 경우 포스터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s, lt, ltg 색조의 R, Y, RY, G, B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한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 표현이 특징적으로 보여졌다. 또한 구도특성은 화면상단부에 레터링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중심에 위치한 여인의 머리, 그리고 그 뒤를 장식하고 있는 원형 또는 반원의 형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꽃과 모자이크,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문양이 있으며, 주 모티브가 되는 여인의 전신이 수직으로 배치된 구도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무하의 장식패널 작품의 32점의 형태특성은 장식패널을 구성하는 일러스트 중앙에 주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있고 그 주위를 식물들이 화려하게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이는 유동적이고 섬세한 곡선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색채 특성은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색채들이 작품을 구성하는 복잡한 모티브들과 어우러져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대체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p, s, b, lt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다. 또한 여기에 W색상과 파스텔 톤의 R, Y, BG, GY, PB와 같은 색상들의 배색을 통해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무하의 장식패널에서 보여지는 구도특성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인물을 다양한 포즈를 통해 비대칭으로 구성하고, 그 인물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시각적인 안정감과 함께 독특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셋째, 슬라브 서사시 20점의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형태특성은 기존에 무하가 주로 사용하던 채색 석판화와 수채화가 아닌 템페라와 유화를 사용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났던 뚜렷하고 간결한 윤곽선의 표현이 아닌 얇고 부드러운 선의 사용표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채특성은 주로 dkg, g, d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어두운 B, PB, P, BG 색상의 사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구도 특성의 경우 작품 속 중심이 되는 인물과 배경이 되는 인물을 명암, 또는 색채, 형태 등에 차이를 주거나 화면에 중간에 사물을 배치하여 화면을 분할하는 구도특성을 보였다.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피에트 몬드리안과 앤디워홀, 르네 마그리트, 장 미셸 바스키아 등과 같은 화가들의 회화작품들이 패션디자인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회화작품을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과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에 그대로 사용되어 나타나거나 회화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 또는 꽃 등의 사물들을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일부를 의상에 응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를 중첩 및 반복배열, 중첩, 과장, 재배열 등의 방법을 통한 꼴라주 기법으로 변형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데 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과 같은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예술성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한 알폰스 무하의 작품 중 6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이에 나타난 모티브를 폴라주 기법에서 보여지는 중첩, 반복배열, 재배열의 방법을 통해 재구성하여 4개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이때 텍스타일 디자인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중 뚜렷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윤곽선과 레터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화적이면서도 빈티지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제작은 앞서 제작한 텍스타일에서 느껴지는 만화적이면서도 빈티지한 이미지와 함께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성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포스터 작품과 장식패널에서 보여지는 비대칭 요소를 의상에 적용하여 스트리트 캐주얼(Street Casual) 스타일과 페미닌(Feminine)한 요소를 혼합한 트렌디한 감성의 룩을 제작하였다. 또한 소재는 오버 핏의 실루엣과 뚜렷한 컬러의 표현이 가능한 두께감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소매, 후드, 바지, 스커트, 상의 등에 플라스틱 장식지퍼를 사용함으로써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웨어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감성의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통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안 및 개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II.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	4
1. 알폰스 무하의 생애	4
2. 시대적 배경	9
1) 아르누보	9
2) 동시대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활동상	14
3) 세기말 파리의 여성상	16
3. 알폰스 무하의 작품세계	19
III.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27
1. 포스터	27
2. 장식패널	32
3. 슬라브 서사시	38
IV.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	43

V. 작품 제작 및 해설	50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50
2. 작품 및 작품해설	54
VI. 결론	120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작품제작 계획	52
<표 2> 패턴 모티브	56
<표 3> 작품 I 작업지시서	65
<표 4> 작품 II 작업지시서	72
<표 5> 작품 III 작업지시서	79
<표 6> 작품 IV 작업지시서	88
<표 7> 작품 V 작업지시서	96
<표 8> 작품 VI 작업지시서	104
<표 9> 작품 VII 작업지시서	112
<표 10> 작품 VIII 작업지시서	119

그림 목 차

<그림 1> 사라 베르나르의 지스몽다 공연 홍보 포스터	6
<그림 2> 사라 베르나르의 사마리아의 여인 공연 홍보 포스터	6
<그림 3> 인류관을 위한 디자인 모형	7
<그림 4> 파리 만국 박람회 오스트리아 전시관 포스터	7
<그림 5>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시관 실내사진	7
<그림 6> 무하가 디자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지폐	9
<그림 7> 무하가 디자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우표	9
<그림 8> 무하와 프라하 클레멘티눔에 전시된 슬라브 서사시	9
<그림 9> 매종 드 라르누보 매장	12
<그림 10> 안토니 가우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12
<그림 11> 루이스 캄포트 티파니, The Tree of life stained glass	12
<그림 12> 구스타프 클림트, 물뱀 I	14
<그림 13> 보석	14
<그림 14> 오브리 비어즐리, 공작무늬 치마	16
<그림 15> 줄 세레, 올랭피아 레스토랑 광고 포스터	16
<그림 16> 틀루즈 로트렉, 일본풍 의자	16
<그림 17>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7
<그림 18> 구스타프 클림트, 유디트 I	17
<그림 19> 프란츠 본 슈투크, 죄	17
<그림 20> 살로메	18
<그림 21> 살람보	18

<그림 22> 욱 담배종이 포스터 I	21
<그림 23> 욱 담배종이 포스터 II	21
<그림 24>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21
<그림 25>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22
<그림 26>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	22
<그림 27>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22
<그림 28> 황도 12궁	24
<그림 29> 사계 I: 봄, 여름, 가을, 겨울	24
<그림 30> 사계 II: 봄, 여름, 가을, 겨울	25
<그림 31> 예술: 시, 춤, 음악, 회화	25
<그림 32> The Holy mount Athos	26
<그림 33> The Oath of Omladina under the Slavic Linden Tree	26
<그림 34>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s for Humanity	26
<그림 35> 지스몽다	28
<그림 36> 카말리아	28
<그림 37> 라트라피스탱 포스터	28
<그림 38> 뿌리는 향수 로도	30
<그림 39> 사이클 퍼펙타	30
<그림 40> 모나코 몬테카를로 P.L.M 철도서비스 포스터	30
<그림 41> 모엣상동: 드라이 임페리얼(좌), 화이트 스타(우) 샴페인 포스터	31
<그림 42> 유아를 위한 네슬레 푸드 포스터	31
<그림 43> 욱 담배종이 포스터 II	31
<그림 44> 사계 II	32
<그림 45> 예술	32

<그림 46> 보석	33
<그림 47> 앵초와 깃털을 위한 디자인	33
<그림 48> <사계 I> 중 겨울	34
<그림 49> <사계 II> 중 겨울	34
<그림 50> 우타가와 히로시게, 다미요 정원의 눈내린 풍경	34
<그림 51> 사계 I	35
<그림 52> 네 개의 꽃	35
<그림 53> 과일과 꽃	35
<그림 54> 보석	36
<그림 55> 네 개의 별	36
<그림 56> 하루 4번의 시간	37
<그림 57> 백일몽	37
<그림 58> Tsar Simeon I of Bulgaria	38
<그림 59> King Přemysl Otakar II of Bohemia	38
<그림 60> Master Jan Hus Preaching at the Bethlehem Chapel:	38
<그림 61> The Coronation of Serbian Tsar Štěpán Dušan	39
<그림 62> After the Battle of Vítkov	39
<그림 63> The Slavs in Their Original Homeland	40
<그림 64> Introduction of the Slavonic Liturgy in Great Moravia	40
<그림 65>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s for Humanity	40
<그림 66> The Celebration of Svantovít	42
<그림 67> The Defence of Sziget by Nikola Zrinski	42
<그림 68> Jan Amos Komenský	42
<그림 69> Yve saint Laurent	43
<그림 70> Yve saint Laurent	43

<그림 71> Yve saint Laurent	43
<그림 72> Yve saint Laurent	44
<그림 73> Henri Matisse, The Snail	44
<그림 74> Henri Matisse, The Sheaf	44
<그림 75> Andy Warhole, Marilyn Monroe	45
<그림 76> Versace	45
<그림 77> Andy Warhole, Mao	45
<그림 78> Vivienne Tam	45
<그림 79> Donna Karam 2015 S/S	46
<그림 80> Valentino 2015 S/S	46
<그림 81> Dsquared 2015 S/S	46
<그림 82> Rene Magritte, 보물섬	47
<그림 83> Adelle Lutz, Jacket&Wood clacks	47
<그림 84> Rene Magritte, 장롱속의 철학	47
<그림 85> Body Coat	47
<그림 86> Paul Cezanne, Pierrot and harlequin	48
<그림 87> Dior 1995 F/W	48
<그림 88> Rodarte 2012 S/S	48
<그림 89> Rodarte 2012 S/S	48
<그림 90> Jean Baptiste Camille Corot, 여성의 초상화	49
<그림 91> Delpozo 2014 S/S	49
<그림 92> 작품 I 이미지 정면	60
<그림 93> 작품 I 이미지 측면	61
<그림 94> 작품 I 이미지 후면	62
<그림 95> 작품 I의 스타일링 이미지 I	63

<그림 96> 작품 I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64
<그림 97> 작품 II 이미지 정면	67
<그림 98> 작품 II 이미지 측면	68
<그림 99> 작품 II 이미지 후면	69
<그림 100> 작품 II의 스타일링 이미지 I	70
<그림 101> 작품 II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71
<그림 102> 작품 III 이미지 정면	74
<그림 103> 작품 III 이미지 측면	75
<그림 104> 작품 III 이미지 후면	76
<그림 105> 작품 III의 스타일링 이미지 I	77
<그림 106> 작품 III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78
<그림 107> 작품 IV 이미지 정면	82
<그림 108> 작품 IV 이미지 측면1	83
<그림 109> 작품 IV 이미지 측면2	84
<그림 110> 작품 IV 이미지 후면	85
<그림 111> 작품 IV의 스타일링 이미지 I	86
<그림 112> 작품 IV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87
<그림 113> 작품 V 이미지 정면	91
<그림 114> 작품 V 이미지 측면	92
<그림 115> 작품 V 이미지 후면	93
<그림 116> 작품 V의 스타일링 이미지 I	94
<그림 117> 작품 V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95
<그림 118> 작품 VI 이미지 정면	99
<그림 119> 작품 VI 이미지 측면	100
<그림 120> 작품 VI 이미지 후면	101

<그림 121> 작품 VI의 스타일링 이미지 I	102
<그림 122> 작품 VI의 스타일링 이미지 II	103
<그림 123> 작품 VII 이미지 정면	107
<그림 124> 작품 VII 이미지 측면	108
<그림 125> 작품 VII 이미지 후면	109
<그림 126> 작품 VII의 스타일링 이미지 II	110
<그림 127> 작품 VII의 스타일링 이미지 II	111
<그림 128> 작품 VIII 이미지 정면	114
<그림 129> 작품 VIII 이미지 측면	115
<그림 130> 작품 VIII 이미지 후면	116
<그림 131> 작품 VIII의 스타일링 이미지 I	117
<그림 132> 작품 VIII의 스타일링 이미지 II	118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패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 빠르게 발전하면서 3D프린터, 빅 데이터, 증강현실 등과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간편하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 기능과 편의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와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패션에서는 건축, 회화,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패션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거나 디자이너에 의해 재탄생되어 패션과 예술이 결합된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현대패션 브랜드에서는 피에트 몬드리안, 앤디 워홀, 장미셸 바스키아, 르네 마그리트,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예술작품을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재탄생시킨 패션디자이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에 나타난 이념과 조형적 특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대패션에 재해석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이너의 독창적 아이디어 발상의 한 방법으로써 회화와 의상의 접목을 통해 기존의 획일화 된 패션에서 탈피한 새로운 감각의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알폰스 무하는 유럽 미술사에서 중요한 미술사조 중 하나였던 아르누보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회화, 삽화, 조각뿐만 아니라 포스터와 보석, 인테리어 장식, 패션디자인 등에서도 이름을 떨친 거장이다. 그의 작품은 낭만적인 고

전의 요소에서부터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작품까지 특유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연적인 모티브들과 리드미컬하게 조화를 이뤄 고풍적이면서도 관능적인 미인, 혹은 청순하고 전원적 순수성을 지닌 여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¹⁾, 특히 무하만의 독특한 선묘를 통해 풍성하면서도 기품 있게 표현되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에 알폰스 무하의 예술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제작을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윤정숙(2003)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응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하여 가방, 구두와 같은 패션소품을 제작하였고²⁾, 김난희(2016)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아르누보적 헤어디자인을 연구하였으며³⁾, 우현지(2014)는 알폰스 무하의 회화 중 ‘월계수’, ‘백일몽’, ‘황도 12궁’, ‘Job’, ‘사계의 봄’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아트마스크를 디자인하였다⁴⁾. 이를 통해 알폰스 무하 작품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르누보 양식의 대가라고 알려진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회화작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알폰스 무하의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성, 그리고 이를 활용한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서울: 컬처그래피, p. 39.

2) 윤정숙 (2003).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의 작품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Textile design)연구 : 패션소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난희 (2016). 알폰스 무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아르누보적 헤어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우현지 (2014). 알폰스 무하의 회화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형식의 구도와 장식문양 및 서체조합, 몽환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여성이미지와 무하 스타일이라 불리는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운 미적 형태와 부드러운 색채 및 구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폰스 무하의 생애부터 그가 활동하던 근대 포스터의 태동기이자 아르누보 양식이 절정을 이루었던 1890년대 파리의 시대적 배경과 아르누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활동상과 당시 세기말의 파리가 추구했던 여성상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그가 생전에 남긴 300여점의 작품들 중 회화작품인 포스터 84점, 장식패널 32점, 슬라브 서사시 20점에 대하여 국내·외 단행본 및 선행연구, 온라인 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둘째,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 장식패널, 슬라브서사시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형태특성, 색채특성, 구도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와 각 작품들의 표현기법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알폰스 무하의 회화작품 중 6점을 꼴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변형하고, 색채를 응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의상디자인 총 8작품을 제작한다.

II.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

2.1 알폰스 무하의 생애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의 본명은 알폰스 마리아 무하(Alphonse Maria Mucha)로 알려져 있으며, 1860년 7월 24일 체코 모라비아의 ‘이반치체’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다⁵⁾. 그는 이반치체의 지방법원에서 안내원으로 일했던 아버지 온드르제이 무하(Ondre Mucha)와 가정교사를 지냈던 그의 두 번째 부인 아말리에 말라(Amalier Marla)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매우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그는 1872년부터 수년간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성당에서 늘 마주치던 스테인드글라스와 화려한 색채의 고서들, 그리고 이와 어우러지는 성당의 미사와 음악들은 훗날 그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예술적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875년 무하는 고향인 이반치체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연극의 무대배경을 그리거나 배우로 나서기도 하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그가 정식으로 그림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프라하의 예술 학교에 입학요청서를 보냈으나 무하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이후 1879년 빈으로 옮겨 무대 배경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된다⁶⁾. 그러던 중 1881년 공방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빈의 유명한 역사 화가이자 장식화가인 한스 마카르트(Hans Markart, 1840-1884)의 회화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의 문하생이 되었다⁷⁾. 마카르트의 회화에는 식

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0606&mobile&cid=40942&categoryId=40495>, [검색일: 2018. 10. 04]

6) 우현지 (2014). 전계서, p. 6.

7) 김난희 (2016). 전계서, p. 5.

물이나 나무를 배경으로 장식한 여성인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하의 의식속에 남아 후에 그의 작품에서도 화려하고 섬세하게 장식된 꽃이나 식물을 배경으로 한 여성인물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82년 모라비아의 미쿨로프에서 초상화를 그리던 무하는 그 지역의 대주 주인 쿠헨 벨라시 백작과의 만남을 통해 정식으로 뮌헨과 파리에서 미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⁸⁾ 1885년 뮌헨의 미술아카데미(The Academy of Fine Arts)에 입학하게 된다. 또한 백작의 지원으로 파리에서도 미술공부를 지속하게 되면서 1887년에는 파리의 줄리앙 아카데미(Academic Julian)에서 수학을 한 뒤, 1년 후에는 콜라로시 아카데미(Academic Colarossi)에 편입하였다⁹⁾. 그러나 1889년 초 무하는 쿠엔 벨라시 백작으로부터 더 이상 금전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공부를 중단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다¹⁰⁾. 백작의 지원중단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했던 무하는 파리와 프라하에서 출판사의 책이나 잡지 그래픽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으며 무하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장식스타일을 통해 능력 있는 삽화가로써 알려지기 시작한다.

1895년엔 무하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당대 파리 연극계의 슈퍼스타인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1844-1923)와 르네상스 극장의 홍보를 위한 최초의 석판화 포스터 ‘지스몽다(Gismond a)’(그림 1)가 새해 첫 날 파리를 뒤덮은 것이다. 무하를 성공으로 이끈 첫 작품 ‘지스몽다’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근대 포스터의 개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¹¹⁾, 그가 그린 사라 베르나르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은 아르누보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¹²⁾. 무하의 이 혁신적인 포스터는 발표

8) 김난희, 권기형 (2015). 알폰스 무하 작품을 모티브로 한 헤어 장신구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p. 6.

9) 우현지 (2014). 전계서, p. 6.

10) 김은혜 (2012). 전계서. 서울: 켈처그래피, p. 61.

11) 김난희 (2016). 전계서, pp. 6-7.

12) 알폰스 무하. doopedia 두산백과. [검색일자: 2018.09.28]

되자마자 파리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처음 선보이는 폭이 좁고 세로로 긴 판형과 실제 크기와 거의 유사한 유명배우의 형상은 극적인 효과를 자아냈으며¹³⁾, 기존의 포스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색채조합을 거부하고 금색·분홍색·갈색·녹색 등으로 미의 여신을 표현한 무하의 포스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잡아끌었다¹⁴⁾.



<그림 1> 사라 베르나르의 지스몽다 공연 홍보 포스터 (1894)
(출처: 조명식, 알폰스 무하. p. 31)



<그림 2> 사라 베르나르의 사마리아의 여인 공연 홍보 포스터 (1897) (출처: 조명식, 알폰스 무하. p. 30)

이러한 인기를 발판삼아 1896년에 무하는 인쇄업자 F.상프누아와 광고 포스터와 장식 포스터 제작을 위한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¹⁵⁾. 이로써 파리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한 무하는 이후 5년 동안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예술가 중 한명으로써 이름을 떨치기 시작

13) Renate Ulmer (2005). 알폰스 무하, 서울: 마로니에북스, pp. 7-8.

14) 이동민 (2005). 전계서, p. 59.

15) 우현지 (2014). 전계서, p. 7.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무하 스타일(Mucha Style)’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다.

1900년 무하는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명망 높은 프랑스 제조업체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로부터 수많은 의뢰와 함께 전시회와 박람회 참석을 요청 받는데¹⁶⁾, 주최측인 프랑스로부터는 인류관의 디자인(그림 3)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는 홍보 포스터(그림 4)와 팸플렛, 그리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관의 디자인(그림 5)을 의뢰받아 작품을 진행한다¹⁷⁾.



<그림 3> 인류관을 위한 디자인 모형(1897) (출처: 장우진, 알폰스무하. p. 135)



<그림 4> 파리 만국 박람회 오스트리아 전시관 포스터(1899) (출처: 장우진, 알폰스무하. p. 134)



<그림 5>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시관 실내사진(1900) (출처: 켈처엔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80)

무하는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한 경험으로 훗날 슬라브족의 기념비적인 작품 ‘슬라브 서사시(The Slav Epic)’에 대한 첫 영감을 얻게 되는데¹⁸⁾, 이후 미국으로 향한 무하는 1904년 첫 방문에서 영웅적인 환영과 함께 뉴욕의 일

16) 켈처엔아이리더스 (2016).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서울: 켈처엔아이리더스, p. 79.

17) 이동민 (2005). 전계서, p. 109.

18) 우현지 (2014). 전계서, p. 8.

간 신문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장식 예술가’라는 평을 받는다¹⁹). 미국에서의 생활 중 무하는 1906년 자신보다 19살 연하의 체코처녀 마르슈카 히틸로바(Maruska Chitilova, 1879-1959)와 결혼하여 딸 야로슬라바(1909)와 이르지(1915)가 태어난다.

1910년 무하는 자신의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체코로 다시 돌아가 그가 계획했던 ‘슬라브 서사시’를 완성하고자 한다. 예술의 보편성과 그 영향력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루리라도 믿었던 무하는 예술의 힘으로 슬라브 민족과 전 인류의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작업으로²⁰ 서보헤미안에 있는 즈비로흐성에서 18년간 ‘슬라브 서사시’ 작업을 진행 한다²¹).

1914년 무하가 슬라브 서사시에 전념하는 동안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고 그의 조국은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국으로 재탄생한다. 무하는 새롭게 탄생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첫 지폐와(그림 6), 우표(그림 7), 국가의 휘장 등 다양한 국가용품을 무상으로 디자인하였으며, 1928년 9월 1일 20년 만에 완성한 기념비적인 작품인 슬라브 서사시 20점을 프라하 무역 박람회장에 전시하고 후원자 크레인(Richard Crane, 1858-1939)과 뜻을 모아 전 작품을 프라하시를 통해 체코민족에 기증한다²²). 그러나 그의 조국이 독립을 맞은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아 1938년 뮌헨협정으로 인해 독일 나치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면서 애국적인 예술가였던 무하의 창작활동도 종지부를 찍게 되며, 1939년 봄 무하는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가장 먼저 체포된 인사들 중 하나가 된다²³). 수차례의 심문 끝에 석방된 무하는 집으로 보내졌으나 당시 고령의 나이에 심리적·신

19) 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계서, p. 83.

20) 네이버 지식백과: 전시회산책, 알폰스 무하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6680&cid=58861&categoryId=58861>. [검색일: 2018. 10. 04].

21) 김난희 (2016). 전계서, p. 9.

22) 김은혜 (2013.8). 예술의 전당 월간정보지, p. 42.

23) 김은혜 (2012). 전계서, p. 340.

체적 충격을 받아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 되어 이후 1939년 7월 14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 프라하의 비셰흐라트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무하의 죽음 이후 그의 장례식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그를 애도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이는 그가 슬라브 민족을 대표하는 예술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 무하가 디자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지폐 (1929)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90)



<그림 7> 무하가 디자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우표 (1918-1920)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90)



<그림 8> 무하와 프라하 클레멘티눔에서 전시된 슬라브 서사시 (1919).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91)

2.2 시대적 배경

1) 아르누보(Art Nouveau)

알폰스 무하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19~20세기 전환기의 유럽은 프랑스어로 ‘좋은 시절’을 일컫는 ‘벨 에포크(Belle Epoque)’시대였다. 이 시대는 1871년 보·불 전쟁(1870~1871)²⁴⁾이 끝난 후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이 없

24) 보·불 전쟁(Franco-Prussian War): 프로이센의 지도하에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비스마르크의 정책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나폴레옹 3세의 정책이 충돌해 일어난 전쟁.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9487&cid=40942&categoryId=31658>. [검색일: 2018. 10. 09].

는 풍요롭고 향락적인 시대를 일컫는 시기로 르네상스 이후 인간적이고 정서가 풍부했던 한 시대의 마지막인 동시에 빛나는 과학시대의 시작이기도 했다²⁵⁾. 이러한 ‘벨 에포크’ 시대에는 기계생산품에 반대하여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에 가치를 두자는 미술공예 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s)을 배경으로²⁶⁾ 한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이 패션·건축·미술 등에서 크게 유행하는데,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이 최고조를 이룬 시기는 20세기 전후(1890-1905)로 이 15년간의 전성기는 유럽 전역을 강하게 휩쓸었으며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르누보는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예술’을 뜻하며, 1980년경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건축·공예의 새로운 양식 중 하나로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공예·의상 등에 이르기까지 삶 속의 예술에 관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일시적이거나 전 유럽을 휩쓸었다²⁷⁾. 또한 과거의 전통적 양식에서 탈피하여 당초문·덩굴문과 같이 유동적인 곡선을 활용한 새로운 조형미의 창조를 추구하였다²⁸⁾. 이러한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은 1895년 12월 사무엘 빙(Samuel Bing, 1838-1905)이 새로운 작업 방향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파리에 세운 화랑 ‘메종 드 라르누보(Maison de l’art Nouveau)’(그림 9)에서 유래하였으며²⁹⁾, 이를 통해 예술가와 공예가들의 전시회나 위탁판매로써 그 양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³⁰⁾. 아르누보 양식은 화려한 곡선이 신선한 감각으로 전개된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는데³¹⁾ 사실적인 표

25) 윤정숙 (2003). 전계서, p. 5.

26) 상계서, p. 6.

27)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아르누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822&docId=22762&categoryId=42822>. [검색일: 2018. 10. 09].

28) 양재천 (1997). 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 19세기말 포스터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29) 유사라 (2001).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 식물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6.

30) 장화진 (1979), 현대미술사. 서울: 형설출판사, p. 88.

31) 신인수, 제윤 (2001). 아르누보 시대의 직물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 생활자원개발연구,

현보다는 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을 추구하였으며,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미의 탐구를 지향하였고 신비주의를 지향하여 물체의 형성요소, 즉 선, 면, 색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³²⁾.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은 무하가 1895년 1월1일에 발표한 광고용 포스터 ‘지스몽다’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며, 당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었던 이 포스터는 처음에는 새로운 예술 장르로써 ‘무하 스타일’이라 불렸으나 이는 나중에 아르누보로써 알려졌다³³⁾.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은 추상적이고 동적인 감각의 독창적인 C자 또는 S자 형태의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다이내믹(dynamic)한 동선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³⁴⁾, 꽃이나 식물 등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를 조형하여 즐거움을 연상시키는 곡선으로 대칭을 파괴하는 특징을 갖는다³⁵⁾. 아르누보 작가들이 이처럼 직선을 피하고 서로 소용돌이치며 교착하는 곡선을 주로 사용한 이유는 이를 통해 가려진 실체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⁶⁾. 아르누보의 주요 장식패턴으로는 무하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꽃과 식물들, 그리고 여인이 대표적이며, 동물에서는 이국적인 느낌의 뱀·공작·표범이 많이 사용되었고, 식물로는 중세의 회화를 연상케 하는 백합·연꽃·포도덩굴 같은 것을 주제로 삼았다³⁷⁾. 아르누보 양식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소로는 자포니즘(Japonism,

p. 133.

32) 박소정, 한지수 (2014).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의 표현 특성에 의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 작품의 표현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p. 38.

33) 위키백과, 아르누보.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5%B4_%EB%88%84%EB%B3%B4. [검색일: 2018. 10. 18].

34) 신인수, 제윤 (2001). 전계서, p. 135.

35) 네이버 지식백과, 19세기 서양미술사 자연미에서 인공미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11885&cid=59556&categoryId=59556>. [검색일: 2018. 10. 18].

36) 윤경숙 (2003). 전계서, pp. 7-8.

37)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아르누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822&docId=22762&categoryId=42822>. [검색일: 2018. 10. 09].

일본풍)을 꼽을 수 있는데, 아르누보는 일본판화의 영향으로 고도로 세련된 여백의 처리와 공간의 이용, 명암이나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처리기법, 선과 윤곽의 강조를 배우게 되었으며, 또한 동양 미술의 특색인 수직 방향의 문자 구성은 포스터와 삽화, 그래픽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⁸⁾.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o Gaudi, 1852-1926), 미국의 화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한 루이스 캠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1848-1933)가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 그리고 체코의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 1860-1939)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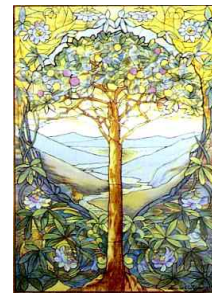
<그림 9>

메종 드 라르 누보 매장 (1895)
(출처: 이동민, 알폰스 무하와 사라 베르나르, p. 101)



<그림 10>

안토니 가우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1883-) (출처: 김희곤, 스페인은 가우디다. pp. 281- 292)



<그림 11> 루이스 캠포트 티파니, The Tree of Life stained glass (1848-1933)
(출처: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Louis_Comfort_Tiffany, 검색일: 2018. 10. 09)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먼저 가우디의 작품인 <그림 10>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의 경우 평소 자연을 사랑하여 모든 건축물을 곡선으로 설계한 가우디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기둥은 나무와 나뭇가지로, 천장의 일부는 잎사귀를 형상화하여 제작하였고 세세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장식물들로 아르누보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장식예술가

38) 유사라 (2001). 전계서, p. 5.

인 티파니는 유리·금공·자기 등의 공예에 뛰어났는데 특히 <그림 11>과 같이 복잡한 빛을 지닌 파브릴 유리를 고안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생동감 있게 표현된 곡선 형태의 식물들과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여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12>에 나타난 구스타프 클림트의 ‘물뱀 I’이라는 작품은 부드러운 신체의 곡선과 물결치듯 구불거리는 여인의 긴 머리를 통해 관능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작품전체를 감싸는 듯 그려진 덩굴을 통해 당시 유행했던 아르누보 회화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아르누보 회화의 대가로 불리는 알폰스 무하는 아르누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 존재로, 아르누보에 특정한 화풍을 유행시킨 인물이다. 무하가 표현한 아르누보는 부드러운 곡선과 꽃,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당시 장식예술에서의 방향이자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작품인 <그림 13>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아르누보 양식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모든 조형예술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감각적인 곡선을 주제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생동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형의 대중화를 추구했던 아르누보는 당시 유럽의 여러 디자인이 불별 없이 뒤섞여 조화와 통일성이 결여된 질충주의에서 탈피하여 건축, 실내장식, 가구, 그릇, 벽지, 직물, 보석, 의상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디자인 감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⁴⁰⁾. 또한 순수예술과 응용예술 사이의 구별을 제거하고 응용예술분야를 순수예술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아르누보 운동이 ‘여러 예술의 종합’을 추구한 결과이다⁴¹⁾. 이와 같은 결과는 무하가 화가로써의 활동뿐만 아니라 무대미술, 악세서리, 스

39) 신인수, 채윤 (2001). 전계서, pp. 133-134.

40) 양재천 (1997). 전계서, p. 13.

41) 이미경 (1991). 전계서, p. 6.

테인드 글라스, 실내장식, 의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디자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여성의 옷에서 악세서리, 생활환경까지 이만큼 패션에 영향을 미친 예술가는 구스타프 클림트를 제외하고는 무하가 유일하였다⁴²⁾.



<그림 12> 구스타프 클림트, 물뱀 I (1904-1907) (출처: 신성림, 구스타프 클림트, 서울: 다빈치. p. 193)



<그림 13> 알폰스무하, 보석 (1900) (출처: 컬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p. 206-207)

2) 동시대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활동상

무하는 파리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써 포스터와 장식패널, 삽화 등 그래픽아트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접목시킨 아르누보 양식을 구현시켰다. 당시 무하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그래픽아트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석판인쇄술을 통한 포스터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그래픽아트 부문에서는 무하 외에도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들이 더 있었다.⁴³⁾ 먼저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

42) 이미경 (1991). 전계서, p. 14.

43) 김은혜 (2012). 전계서, p. 93.

했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영국의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sley, 1872-1898)를 말 할 수 있다. 그는 당시 그래픽아트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그림 14>와 같이 가늘고 우아하게 늘어진 선으로 병약한 에로티시즘을 결합시켰으며, 율동적이고 절묘한 선, 대담하게 추상적인 패턴과 극적인 장식으로 환상과 신비주의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⁴⁴. 또한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포스터 작가들로는 ‘포스터의 아버지’로 불렸던 줄 세레(Jules Cheret, 1836-1932)와 리브몽(T.P.Livemont, 1861-1936), 그리고 세기말 파리화단의 거장이었던 툴루즈 로트렉(T. Lautrec, 1864-1901)이 있다. 줄 세레는 포스터에 최초로 아르누보 양식을 도입시킨 인물로, 강한 색채와 단순한 윤곽선, 그리고 대담한 레터링으로 아르누보 포스터의 특징을 공식화하였으며⁴⁵, 대표작으로는 ‘감기약’, ‘안전등유’, ‘올랭피아 레스토랑(그림 15)’ 등이 있다. 리브몽은 벨기에의 장식미술가로 무하보다 일찍부터 포스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무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무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의 대표작들로는 ‘카르브 해수욕장’과 같은 관광포스터와 ‘압상트’ 양주포스터가 있다. 부유한 백작가에서 태어난 툴루즈 로트렉은 어린시절 사고로 하반신의 성장이 멈췄으나, 파리 몽마르트의 카바레, 카페, 사창가에 출입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포착해 묘사하였다. 또한 로트렉은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상파 화가들과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아 힘 있고 명확한 윤곽선과 명암의 대비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정립하여 포스터를 예술적 위치로 올려놓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 밖에 수많은 잡지표지와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여 아르누보양식을 미국에 보급시킨 브레들리(W.H Bradley, 1868-1962)와 하셀(J. Hassall, 1868-1948) 등이 무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포스터 작가들이다.

44) 양재천 (1997). 전계서, p. 17.

45) Ann Ferebee, 유근준 역 (1983). 디자인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청우, p. 63.



<그림 14> 오브리 비어즐리, 공작부녀 치마 (1892)
(출처: 김은혜,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75)



<그림 15> 줄 세레, 올랭피아 레스토랑 광고 포스터 (1899)
(출처: 김은혜,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94)



<그림 16> 툴루즈 로트렉, 일본풍 의자 (1892-1893) (출처: 김은혜,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54)

3) 세기말 파리의 여성상

1889년 파리는 거칠고 에로틱하며 관능적인 춤이 유행하였고, 폭탄이라는 별명을 갖은 라 굴뤼, 댄스광인 잔 아브릴과 가수 이베트 길레르, 그리고 아리스티드 브뤼앙 등이 있었으며⁴⁶⁾, 이들은 로트렉의 포스터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하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쉽고 아름다우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고운 살결과 훔날리는 풍성한 머리카락, 부드러운 신체의 곡선과 우아한 의상을 입은 무하의 작품 속 여인들은 동시대 여인들의 이상향이었으며, 당시 남성들의 비난과 혐오를 던진 세기말의 ‘팜프파탈’의 이미지와도 거리가 멀었다⁴⁸⁾. 19세기 말에서 20

46) 양재천 (1997). 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 19세기말 포스터 작품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p.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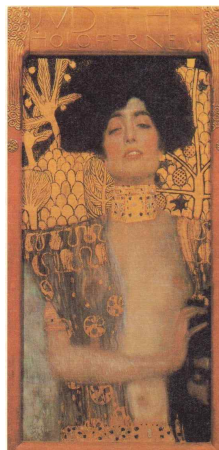
47) 장우진 (2017). 전개서, 서울: 책우리, p. 86.

48) 정수안 (2015). 아르누보 양식을 통한 여성이미지 표현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기 초의 세기말적 상황에서 등장한 팜프파탈적 여성상은 아르누보 예술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 이러한 팜프파탈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성서에 기록된 ‘살로메’라는 여인을 말할 수 있다. 그녀는 악의 화신이자 육체적 정열을 상징하는데, 특히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의 삽화를 담당한 비어즐리에 표현된 살로메는 팜프파탈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⁴⁹⁾.



<그림 17>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894) (출처: 이동민 (2005), 알폰스 무하와 사라 베르나르. p.85.)



<그림 18> 구스타프 클림트, 유디트 I (1901) (출처: 이동민 (2005), 알폰스 무하와 사라 베르나르. p. 86.)



<그림 19> 프란츠 폰 슈투크, 죄 (1893) (출처: 이동민(2005), 알폰스 무하와 사라 베르나르. p. 86.)

피가 줄줄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입을 맞추는 비어즐리가 그린 <그림 17>의 ‘살로메’의 모습이나 <그림 18>에 나타난 에로틱한 클림트의 ‘유디트 I’, <그림 19>의 프란츠 폰 슈투크(Franz von Stuck, 1863-1928)의 ‘죄’(그림 19)가 표현하는 매혹적인 자태는 팜프파탈의 치명적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⁵⁰⁾.

이처럼 팜프파탈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그녀들의 이미지는 퇴폐적이고

문, p. 20.

이동민 (2005). 전개서, p. 84.

이동민 (2005). 전개서, p. 84.

신경질적이며 공포스럽기까지 한 반면⁵¹⁾, 무하가 표현한 팜프파탈은 앞서 언급했던 여인상들과는 달리 부드럽고 연약하며 처연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0, 21).



<그림 20> 살로메 (1897)
(출처: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22.)



<그림 21> 살람보 (1896-1897)
(출처: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22.)

무하는 당시 남녀평등을 외치던 세기말 사회에 불안을 느끼던 남성들의 위기감을 포착하고, 매혹적인 여인을 로맨틱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함으로써 남성들의 위기감을 달래주며 상업성이 추구하는 소비 창출로 연결시켰다⁵²⁾. 이러한 무하의 상업미술은 묘사 대상의 균형미를 고려한 이미지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전통 미학의 형식에서 탈피해 고도로 스타일화 되고 이상화 된 여성을 탄생시켰다.

2.3 알폰스 무하의 작품세계

장우진 (2017). 전계서, p. 222.
52) 김은혜 (2012). 전계서, p. 123.

알폰스 무하는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파리에 서 예술가로 활동하며 매우 개성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아르누보 양식을 전개하였다⁵³). 그는 다양한 시대의 양식적 요소들을 당대의 아르누보 장식미술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양식을 완성하였으며⁵⁴), 바로크, 비잔틴, 네오고딕 미술양식 등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특색 있는 화풍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무하의 파리 아르누보 시절 작품들은 화사하고 밝은 색채, 뚜렷한 외곽선, 그리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미를 특징으로 하며, 그가 표현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관능적이고 고풍적인 미인, 또는 청초하면서도 전원적인 순수성을 지닌 미인으로 나타난다⁵⁵). 무하의 디자인 활동은 포스터와, 장식패널, 인테리어, 가구, 스테인드 글라스, 보석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장르와 아이템에 걸쳐있으며, 본 장에서는 그 중 무하의 대표적인 회화작품들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무하가 파리로 근거지를 옮긴 19세기 말은 근대 포스터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로 다색석판(Color-lithograph)에 의한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목판인쇄, 수채화 인쇄 등 여러 가지 인쇄기술에 의해 그려졌던 종래의 포스터와는 차원이 다른 대전환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⁵⁶).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복제기술 덕에 그의 포스터와 장식패널, 달력, 행사용 인쇄물, 잡지 표지와 삽화는 광범위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⁵⁷).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파리 인쇄소이자 출판사인 F.샹프누아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던 무하는 옴(담배종이), 펄팩타(영국 자전거), 네슬레(이유식), 모엣샹동(삼페인), 그리고 르페브르 위털(비스킷)과 같은 수많은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다⁵⁸). 이처럼 무하가 남긴 작품 중 상당량은

53) 강순천 (2009). 알폰스 무하의 사라 베르나르 연극 포스터. 디자인학연구, p. 147.

54) 김난희 (2016). 전계서, p. 14.

55) 김은혜 (2012). 전계서, p. 39.

56) 양재천 (1997). 전계서, p. 14.

57) Renate Ulmer, 이원제 역 (2005). 전계서, p. 6.

58) 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계서, p. 149.

상업 포스터로, 그의 대중적 인기는 광고 분야에서도 그의 이름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상업과 예술이 결합된 감성 마케팅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소비사회’ 파리에서 무하는 광고시대의 주역이 되어 아티스트로서의 절정을 맞이한다⁵⁹⁾. 당시 무하는 예술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친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였고 포스터의 대중적 장점을 이용하여 폭 넓은 사회계층이 예술작품을 보고 흥미를 가질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⁶⁰⁾. 무하의 포스터 대표작 중 하나인 <옴>은 <그림 22>의 1896년과 <그림 23>의 1898년에 걸쳐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두 포스터 모두 옴 모노그램(요셉 바르두 회사의 트레이드마크) 무늬를 배경으로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⁶¹⁾. 당시 최신 유행 스타일은 보다 폭 넓은 계층에 전파하기 위해 담배카드 또는 엽서를 통해 전파되었는데 이 포스터가 나오기 전까지의 담배는 술과 함께 지극히 남성 취향의 제품으로, 장군 또는 미식축구 선수, 야구선수와 같이 지극히 남성 지향적인 주제와 더불어 나체에 가까운 미인과 무희들처럼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채워주는 대상들이 주제가 되었다⁶²⁾. 하지만 무하는 부드럽게 물결치는 머리카락과 함께 피어오르는 담배연기, 그리고 보는 이를 유혹하는 듯 한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의 모습을 통해 남성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독립된 정체성을 갖고자 했던 당시 여성 소비자들의 욕구 또한 충족시키며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무하가 영국의 자전거 브랜드 펄팩타의 광고 포스터(그림 24)를 제작할 시점에는 자전거가 ‘신여성’을 상징하는 자유기계로 불렸는데, 무하는 이를 반영하듯 밝고 당당한 모습의 젊은 여성이 자전거 핸들에 가볍게 기대 알 수 없는 미소로 정면을 바라보며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포스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바람에 흩날리며 물결치는 풍성한 머리카

59) 김은혜 (2012). 전계서, p. 105.

60) 상계서, p. 106.

61) 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계서, p. 151.

62) 장우진 (2017). 전계서, p. 90.

락은 자전거라는 주제가 주는 역동적이면서도 경쾌한 느낌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2> 읍 담배종이
포스터 I (1896) (출처: 컬처
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150)



<그림 23> 읍 담배종이
포스터 II (1898) (출처: 컬처
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151)



<그림 24>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1902) (출처: 컬처앤
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
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153)

<그림 25>는 당시 가장 유명한 갤러리였던 ‘살롱 데 상(Salon des Cent)’의 포스터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폭포처럼 굽이치는 금발이 후광처럼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반라의 여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⁶³⁾, 무하는 이 포스터로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훗날 ‘살롱 데 상(Salon des Cent)’에서 자신의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6>은 ‘살롱 데 상(Salon des Cent)’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로, 옛된 모습의 소녀가 화관을 들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가 들고 있는 화관을 보고 당대의 한 비평가는 “우매함의 엉덩퀴와 재능의 가시, 사랑의 꽃송이에 의해 위협받는 심장”을 묘사했다고 말했으며, 민속미술에 등장하는 데이지 꽃으로 장식한 소녀의 보닛은 무하의 출생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⁴⁾.

63) Renate Ulmer, 이원제 역 (2005). 전계서, p. 26.



<그림 25>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1896)
(출처: 장우진, 알폰스무하. p. 68)



<그림 26>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 (1896)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 67)



<그림 27>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1896) (출처: 켈 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62)

<그림 27>의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포스터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여인들과 말끔한 모습의 신사, 그리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실내 장식을 통해 위털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 제품이 상류사회의 사교모임에서 애호되는 고급 제품임을 암시하고 있다⁶⁵⁾. 즉 무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이 광고 속 비스킷을 한입 깨물었을 때, 잠시나마 어느 귀부인의 티파티에 초대라도 된 듯한 기분을 내도록 한 것이다⁶⁶⁾. 이처럼 무하는 19세기말-20세기 초 프랑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신의 작품을 접목시켜 아트 비즈니스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산업화와 대량생산 시대에 맞추어 변화를 흡수하고 자신의 영감을 작품 속에서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⁶⁷⁾.

무하를 대표하는 회화작품은 크게 상업미술의 포스터와 장식미술의 장식 패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는 1896년 이후 F.샹프누아와 함께 장식패널과

64) 상계서, p. 28.

65) 김은혜 (2012). 전계서, p. 109.

66) 장우진 (2017). 전계서, p. 82.

67) 김은혜 (2012). 전계서,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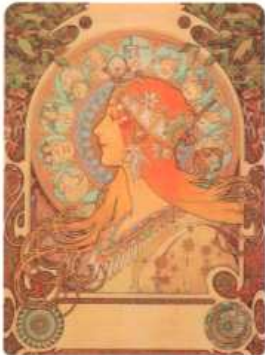
엽서, 달력 등과 같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무하 스타일’을 형성해 나가
기 시작한다. ‘황도12궁’(그림 28)은 그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
로, 그의 작품에서 늘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성과 부드럽게 물결치는 머리카
락, 머리 뒤로 장식된 후광과 같은 형태의 룬이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룬을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별자리는 동물들의 표정하나까지 세심하게 표현
되었으며, 양옆으로 내려오는 월계수 잎과 식물줄기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의 장식무늬가 그림의 가장자리를 채우고 있다. 본래 이 작품은 샹프누
와의 달력으로 만들어졌으나 발표된 이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1889
년에는 ‘살롱 데 상’을 만든 ‘레옹 데 샹(Leon Deschamp)’이 창간한 잡지
<라 플뤼>의 달력으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후 제작된 장식패널은 대부분
네 장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튼튼한 종이나 실크에 작품을 인쇄해 그림처럼
틀에 끼우거나 당시의 유행을 좇아 실내용 칸막이를 장식하는데 사용되었으
며, 다량으로 인쇄되어 널리 배포하였다⁶⁸⁾. 이러한 장식패널은 사물이나 개
념을 의인화하기 좋아했던 무하의 기호를 보여주며, 첫 4부작인 ‘사계(1896)’
에서 시작해, ‘꽃(1898)’, ‘예술(1898)’, ‘보석(1900)’, ‘별(1902)’ 연작과 4부작은
아니지만 ‘달(1899)’ 연작으로 이어진다⁶⁹⁾. 그중 1896년에 제작된 ‘사계’는 무
하의 첫 번째 연작 장식패널 시리즈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요소들
을 이용하여 각 계절을 4개의 패널에 의인화 한 작품으로, 이 작품이 세계
적인 성공을 거두면서부터는 1897년부터 1900년까지 수많은 변형 작품과 새
로운 작품들이 등장 하였다⁷⁰⁾. 1896년에 제작된 <그림 29>의 ‘사계 I’은 높
은 명도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감과 자연형태의 우아한 곡선,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 모티브들과 오묘한 표현을 짓고 있는 여인들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아르누보 양식을 가장 잘 드러낸 작

68) Renate Ulmer, 이원제 역 (2005). 전계서, p. 11.

69) 상계서, p. 12.

70) 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계서, p. 179.

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8> 황도 12궁 (1896)
(출처: 컬처앤아이리더스 ,
알폰스무하: 모던그레
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4.)



<그림 29> 사계 I (1896)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p. 70-71)

이후 1900년에 새롭게 그려진 ‘사계Ⅱ’(그림 30) 또한 부드럽고 화사한 파스텔 톤의 색채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인물과 함께 표현된 식물의 종류와 배경,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노출 정도까지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896작에는 없었던 가장자리의 장식문양을 더함으로써 보다 섬세한 장식성이 가미된 것을 볼 수 있다. 무하의 또 다른 유명한 장식패널 작품인 ‘예술’(그림 31)은 네 개의 예술작품을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자연과 특정 시간을 연계한 모티브를 원형 배경에 사용하면서 자연이 창의적인 영감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였다⁷¹⁾.

이처럼 무하의 포스터는 거리를 메우고, 장식패널은 가난한 이들의 허름한 방에서부터 고급주택의 응접실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눈이 머무르는 어느 곳이나 있는 대중을 위한 예술이 되어 가고 있었다⁷²⁾.

71) 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게서, p. 219.

72) 장우진 (2017). 전게서, p. 75.



<그림 30> 사계II울 (1900)
 (출처: 켈쳐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4)



<그림 31> 예술 (1898)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 74)

포스터와 장식패널을 통해 파리와 뉴욕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공을 거둔 무하는 상업화가로써의 성공을 뒤로하고 조국인 체코로 돌아와 자신의 민족인 슬라브족의 강인함과 그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세기의 역작을 준비한다. 이는 바로 <그림 32-34>의 ‘슬라브 서사시’로, 20점의 연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20년의 제작기간에 걸쳐 탄생하였으며, 선사시대부터 19세기까지에 이르기까지 슬라브인들의 종교와 문화, 예술, 그리고 자유와 역사를 담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8미터와 6미터를 넘는 거대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슬라브 서사시’는 무하가 이전에 그렸던 작품들처럼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 그의 조국에 대한 꿈과 소망, 그리고 애국심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데에서 그의 다른 작품들과 구분되며, 체코와 다른 슬라브 민족들의 아픈 역사와 여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 모두를 표현하였다. 무하는 당시 이 작품이 슬라브 민족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코 슬로바키아인들이 독립의 열망과 자유정신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2> Cycle No.17.
Holy Mount Athos Sheltering the Oldest Orthodox Literary Treasures (192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c>,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32> Cycle No.18.
The Oath of Omladina under the Slavic Linden Tree (192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그림 34> Cycle No. 20.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s for Humanity (192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12.08)

이와 같이 낭만적인 꿈의 세계를 창조한 무하는 이류에 머물러 있던 실용 미술을 순수미술의 단계로 끌어올린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 대량으로 인쇄된 그의 작품들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예술을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일찍이 기여했으며, 그의 포스터와 장식 작품은 회화와 다름없는 예술성을 추구함으로써 근대미술의 새로운 영역의 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⁷³⁾.

73) 두산백과,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0606 &mobile&cid=40942&categoryId=40495](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0606&mobile&cid=40942&categoryId=40495). [검색일: 10.12]

Ⅲ.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 분석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유기적인 곡선의 사용과 강한 장식적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크게 포스터와 장식패널, 슬라브 서사시로 구분되는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형태, 색채, 구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포스터

1) 형태

무하의 포스터 작품은 그만의 독특한 무하 스타일을 통해 재해석 되어 표현된 인물 또는 주제와 이를 표현한 풍부한 장식요소들, 그리고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선의 표현과 장식 및 메시지 전달의 목적을 갖는 레터링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명 ‘무하 스타일’로 불리는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여성을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작품인 사라 베르나르의 ‘지스몽다’(그림 35)의 연극 포스터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그림 3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상과 원형을 결합한 풍성한 장식 모티브, 채찍모양의 선과 그리고 다양한 기하학 패턴들을 특징으로 한다⁷⁴⁾. 이때 무하는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뚜렷하면서도 두꺼운 검정색 윤곽선으로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에 만

74) 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계서, p. 29.

화 같은 느낌을 더하여 독특한 무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의 포스터를 구성하는 여성들은 유동적인 곡선을 통해 장식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와 함께 포스터를 보는 이를 매혹시키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그림 35-37>과 같이 작품 상단 또는 하단에 레터링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포스터가 갖는 메시지 전달의 기능을 더하였다. 이러한 레터링은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포스터를 구성하는 일러스트에 따라 다양한 서체를 적용하거나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35> 지스몽다 (1894)
(출처: 이동민, 알폰스 무하와 사라 베르나르. p. 81)



<그림 36> 카말리아 (1896)
(출처: 장우진, 알폰스무하. p. 57)



<그림 37> 라트라피스트앵 포스터 (1897)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6)

무하가 활동하던 아르누보 시기에는 인쇄술의 발전으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가 화가들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⁷⁵⁾, 그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문자형이든지 이제까지 인쇄된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밝고 선명한 색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사용하였으며⁷⁶⁾, 무하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여 장식적 성격이 강한 그의 일러스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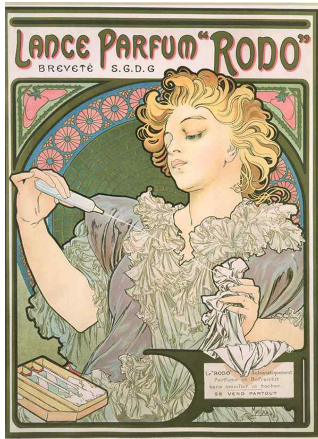
75) 양재천 (1997). 전계서, p. 288.

76) 상계서, p. 288.

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무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레터링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의 가장자리가 또렷한 검정색의 윤곽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으로, 이는 강한 장식성을 띠는 무하의 포스터 사이에서 이와 같이 문자의 외곽선을 뚜렷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색채

무하가 활동하던 당시 대부분의 포스터 작가들은 비비드하고 강렬한 원색적인 색채를 사용한 포스터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등장한 지스몽다 포스터는 기존에 유행하던 포스터들과는 달리 s, lt, ltg 색조와 같이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표현된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그림 38-40). 무하는 이처럼 아르누보에서 흔히 보이는 밝고 화사한 파스텔조의 색상을 사용하여 몽환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분위기의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하는 파스텔톤의 R, Y, RY, G, B 컬러를 주조색으로 배경을 표현하고,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브들은 배경보다 조금 더 짙거나 밝게 표현하여 그 경계는 두껍고 진한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특히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포스터의 특성상 화면의 상단과 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레터링은 진하고 또렷한 컬러로 표현한 후 그 외곽부분은 까만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명시성을 높였으며,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 39>의 풍성하게 물결치는 머리카락은 화려하고 밝은 색채로 강조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38> 뿌리는 향수 로도 광고포스터 (1896) (출처: 장우진, 알폰스무하. p. 87)



<그림 39>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1902) (출처: 컬처엔 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라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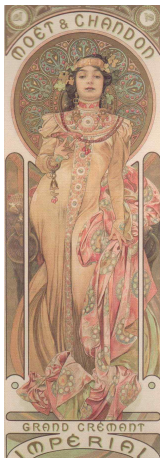
<그림 40> 모나코 몬테카를로 P.L.M 철도서비스 포스터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07.)

3)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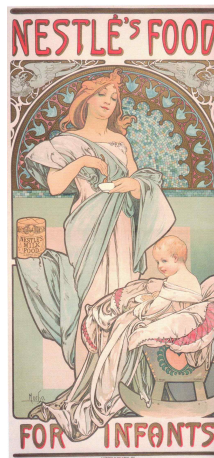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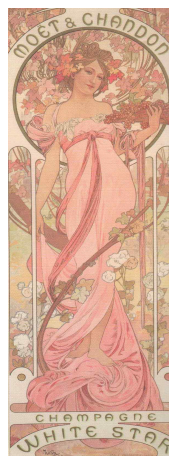
무하의 포스터는 대체적으로 화면상단부에 레터링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중심에 위치한 여인의 머리, 그리고 그 뒤를 장식하고 있는 원형 또는 반원 형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꽃과 모자이크,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문양이 있으며, 주 모티브가 되는 여인의 전신이 수직으로 길게 배치된 구도를 특징으로 한다(그림 41-43). 여기서 작품의 중심을 구성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보이는 구조상의 특징 중 하나로, 비대칭 구도가 생동감과 격동을 표현하기 위한 꼭 필요한 표현양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⁷⁷⁾. 이처럼 심리적으로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는 대칭구도가 아닌 비대칭 구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안정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42>와 같이 인물이 이루고 있는 수직

77) 윤성희 (1988).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꽃과 유기적인 곡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4

구도가 작품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레터링, 포스터의 외곽선과 만나 화면의 여러 곳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수직과 수평의 교차에 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장식요소 및 기본 틀들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장식성이 강한 무하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다양한 레터링과 같은 각각의 요소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모엣샹동: 드라이 임페리얼(좌), 화이트스타 샴페인(우) 포스터 (1899)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8)



<그림 42> 유아를 위한 네슬레 푸드 포스터 (1897)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4)



<그림 43> 옴 담배종이 포스터Ⅱ (1898) (출처: 켈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1)

이와 같이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구도 특성은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적인 표현 수단과 전달 방법으로 비대칭 도구와 대칭적 틀을 통해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면 중앙에 위한 여성상을 주 모티브로 부각시키고 배경과 레터링을 통해 장식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3.2 장식패널

1) 형태

무하의 장식패널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중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화려하게 표현된 꽃과 나무, 잎, 줄기 등과 같은 자연물, 그리고 뚜렷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외곽선을 말 할 수 있다. 그의 장식패널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그림 44>의 ‘사계 II’, <그림 45>의 ‘예술’, <그림 46>의 ‘보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그의 장식패널은 중앙에 주 모티브가 되는 아름답게 표현된 인물이 있고 그 주위를 식물들이 화려하게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4> 사계II (1900) (출처: 컬처엔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 154)



<그림 45> 예술 (1898)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 74)

이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만발한 꽃들과 인물, 장식문양 등이 유동적이고 섬세한 곡선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흔들리는 옷자락과 머리카락, 그리고 풍성하게 표현된 식물 모티브들의 모습을 통해 보다 장식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식물줄기와 같이 유기적으로 표현된 곡선들은 굵고 명확하게 표현된 강렬한 직선과 만나 조화를 이

루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그의 포스터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 뒤편의 원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이 다양한 전통문양 또는 자연문양을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장식패널의 경우 4개로 구성된 각각의 패널에 따라 다른 문양으로 테두리를 장식하여 보다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 보석 (1900) (출처: 컬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p. 206-207)

<그림 47> 애초와 깃털을 위한 디자인 (1899) (출처: 장우진, 알폰스무하. p. 126)

또한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뚜렷하게 표현된 외곽선은 자포니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회화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요소인 두꺼운 장식선으로 표현된 벽에 걸리는 작품과 상하로 길게 표현된 공간, 그리고 눈에 덮인 나무과 식물들의 모습 등이 이에 속한다⁷⁸⁾. 이러한 자포니즘의 영향은 그의 장식패널 시리즈 중 <그림 48, 49>의 ‘사계 I, II-겨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눈이 내려 앉은 나무와 마치 꺾인 듯 한 외곽곡선으로 묘사된 인물의 자세 등이 <그림 50>에 나타난 일본의 회화 형식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⁷⁹⁾, 이와 같은 자포니즘 스타일 등이 기존의 아르누보 스타일과 접목되면서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78) 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게서. p. 179.

79) 김은혜 (2012). 전게서, p. 155.



<그림 48>
 <사계 I> 중 겨울 (1896)
 (출처: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54)



<그림 49>
 <사계 II> 중 겨울 (1900)
 (출처: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54)



<그림 50> 우타가와 히로시
 게, 다미요 정원의 눈내린
 풍경 (1830) (출처: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p. 154)

2) 색채

무하의 장식패널 작품에서 느껴지는 색채 특성은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며, 작품을 구성하는 복잡한 모티브들과 어우러져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대표적인 장식패널 연작인 <그림 44, 51>의 ‘사계’, <그림 45>의 ‘예술’, <그림 52>의 ‘네 개의 꽃’, <그림 53>의 ‘과일과 꽃’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p, s, b, lt 톤의 색조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W 색상과 파스텔 톤의 R, Y, BG, GY, PB와 같은 색상들의 배색을 통해 화사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중 그의 장식패널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색채는 다양한 톤의 R색상으로, 이를 통해 여성스러움, 연약함, 부드러움, 따뜻함,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꽃과 함께 어우러져 보다 화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51> 사계 I (1896)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 70-71)



<그림 52> 네 개의 꽃 (1898)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 76)

<그림 53> 과일과 꽃 (1897) (출처:
장우진, 알폰스 무하. p. 13)

하지만 가끔은 ‘보석’, ‘네 개의 별’에 사용된 것과 같은 저채도의 dkg, d
톤의 색상을 사용한 작품들도 보여지는데, <그림 54>의 ‘보석’의 경우 작품
에서 보여지는 어두운 톤의 GY색상과 P, R, Y 색상의 사용을 통해 깊고 차
분하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55>의 ‘네 개의 별’
에서는 어두운 톤의 G, B, Y 색상을 사용하여 이지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54> 보석 (1900) (출처: 킬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 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p. 206-207)

<그림 55> 네 개의 별 (1902) (출처: 킬처앤아이리더스, 알폰스 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pp. 186-187)

이렇듯 그의 작품에 밝고 화려한 색채가 주로 사용 된 것은 아르누보 예술 양식의 전반적인 색채가 인상주의(Impressionism)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파스텔조의 색상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⁸⁰⁾, 장식패널이 갖는 강한 장식적 성격으로 인해 보다 화려하고 화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3) 구도

무하의 장식패널은 대부분 <그림 56>과 같이 중앙의 인물을 앗아 있는 모습, 비스듬하게 서있는 모습, 또는 옆으로 몸을 틀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포즈를 통해 비대칭으로 구성하고 패널을 구성하는 테두리 또는 인물의 뒤로 보이는 배경을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균형감과 안정감과 함께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 앞서 분석한 포스터에서 나타난 구도와 비슷하지만, 포스터와 구별되는 점은 장식패널의 경우 대부분 테두리를 구성

80) 윤정숙 (2003). 전계서, p. 21.

하는 화려한 문양이 패널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레터링이 장식적 요소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포스터와는 달리 작품의 상단부분을 화려하게 표현한 꽃이나 나무로 장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또한 무하의 장식 패널에 자주 등장하는 구도 특성으로 ‘큐 공식(Q-Formula)’을 말 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하 스타일의 대표적인 원형 중 하나로 <그림 57>의 ‘백일몽’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큐 공식’은 원형 안에 앉아 있는 인물 혹은 ‘Q’를 형성하며 길게 늘어뜨려진 휘장을 품은 편자 모양의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⁸¹⁾. 이처럼 무하 스타일은 하나의 공식처럼 전해져 응용되거나 변형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그래픽 예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 56> 하루 4번의 시간 (1899)
(출처: 조명식, 알폰스무하, pp. 52-53)



<그림 57> 백일몽 (1897) (출처 : 장우진, 알폰스무하. p. 62)

81) 킬처앤아이리더스 (2016). 전개서,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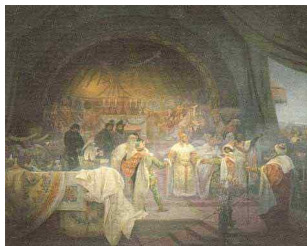
3.3 슬라브 서사시

1) 형태

슬라브 서사시는 무하가 약 20년에 걸쳐 제작한 대작으로, 상업미술과 장식미술로 큰 성공을 거둔 무하가 이를 뒤로 한 채 애국심을 위해 완성한 작품이다. 이에 기존의 상업적 성격을 띠었던 포스터와 장식패널 작품들과 전혀 다른 화법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채색 석판화와 수채화를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유명화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템페라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세부적 묘사는 유화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무하가 사용한 템페라는 순수한 계란 템페라가 아닌 계란 노른자에 빵은 안료, 물과 기름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고 마지막은 유화로 마무리하여 투명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⁸²⁾. 이러한 슬라브 서사시의 형태적 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무하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뚜렷하고 두꺼운 검정색의 윤곽선 표현이 사라지고 얇고 섬세한 부드러운 선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모티브가 되는 주요 인물들의 변화이다(그림 58-60).



<그림 58> Cycle No.4.
Tsar Simeon I of Bulgaria
(1923) (출처:<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59> Cycle No.5.
King Přemysl Otakar II of
Bohemia (1924)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60> Cycle No.8.
Master Jan Hus Preaching at
the Bethlehem Chapel(191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12.08)

82) 장우진 (2017). 전계서, p. 173.

무하 작품의 포스터와 장식패널 작품의 대부분은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여인과 이를 둘러싼 장식요소들을 통해 밝고 이상적이며 꿈을 꾸는 듯 한 몽환적인 이미지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 반면, 슬라브 서사시의 경우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남녀노소 모두가 등장하며, 때로는 절망적이거나 두려움에 찬 표정, 경이로운 표정 등 주로 어둡고 심오한 이미지의 표현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을 묘사하였다. 또한 슬라브 서사시를 살펴 보면 그림마다 정면을 쳐다보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림 61>과 같이 의지가 깃든 단호한 표정이거나 <그림 62>와 같이 분노를 담은 표정일때도 있으며, 때로는 겁에 질리거나 슬픔에 찬 표정 등을 표현하여 무하가 각각의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대한 캔버스를 가득 메우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들의 옷 주름하나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한 디테일, 그리고 8미터와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Cycle No.6. The Coronation of Serbian Tsar Štěpán Dušan (192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그림 62> Cycle No.11. After the Battle of Vitkov (191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2) 색채

슬라브 서사시는 슬라브인들의 역사와 고통, 그들의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그림 63-65>와 같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색채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대부분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신비롭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어떤 작품은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바탕색으로는 주로 dkg, g, d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어두운 B, PB, P, BG 색상의 사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림 63, 6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작품 속 인물들이 입은 새하얀 옷이나 이들을 비추는 빛의 표현, 또는 밤하늘에 하얗게 빛나는 별들의 표현이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보다 신비롭고 장엄한 느낌을 더하였으며, 그 밖에 몇몇 작품에서는 어두운 Y, RY, R 색상 등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3> Cycle No.1.
Slavs in their Original
Homeland(1912)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그림 64> Cycle No.3.
The Introduction of the Slavonic
Liturgy (1912)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그림 65> Cycle No. 20.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s for Human-
ity (1926) (1926) (192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슬라브 서사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색채 특성으로는 인물들의 명암차 또는 색채의 변화 따라 현실과 상징을 구분시키고 대비와 빛을 표현한 흰색을 기초로 하여 명료한 색채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슬라브 서사시 연작 중 마지막 20번 작품인 <그림 65>의 ‘The Apotheosis of the Slavs, Slav for Humanity’에 잘 나타나 있는데, 슬라브 역사의 여러 측면을 4가지 색상으로 사용하여 분류한 이 작품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B, R, Y, Bk 색상을 사용하여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오른쪽 하단의 B 색상은 신화적인 초기를, 왼쪽 상단의 Red 컬러는 슬라브 역사 중 후스 전쟁에서 홀린 피를, Bk 색상으로 표현된 그림자들은 슬라브 부족에게 가해진 적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의 중앙에서 Y 색상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화합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슬라브 서사시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면의 상징성과 사상성을 표현하는 구성 요소는 우울한 푸른빛으로 표현하거나 중요한 인물들은 희미한 후광을 표현하여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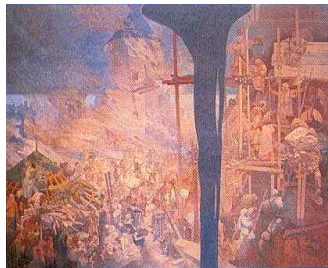
3) 구도

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20편의 시리즈로 표현한 슬라브 서사시는 20개의 작품에 따라 다양한 구도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의 경우 각각 8m, 6m가 넘는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를 가득 메우는 수많은 인물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데, <그림 66-67>과 같이 그림에 빼곡이 표현된 사람들은 과거 화면 중앙에 위치한 단일 인물과 이를 장식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던 그의 예전작품과 비교했을 때 같은 인물이 그린 작품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슬라브 서사시는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를 가득 메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구성

하고,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은 중앙에 배치하거나 정면을 바라보는 구도로 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무하는 작품 속 중심이 되는 인물과 배경이 되는 인물을 명암, 또는 색채, 형태 등에 차이를 주거나 화면에 중간에 사물을 배치하여 화면을 분할하는 구도를 사용하였는데, 슬라브 서사시 중 14번째 작품인 <그림 67>의 ‘The Defence of Sziget by Nikola Zrinski by Nikola Zrinski’를 살펴보면 화면 중앙에 묘사한 폭발의 순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표현된 희생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또렷하게 표현된 반면 왼쪽의 파괴된 마을의 모습들은 흐리게 표현하여 화면을 분할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로 수직구도의 세로로 긴 작품을 그렸던 과거와는 달리 수평구도의 가로로 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작품의 경우에는 <그림 68>과 같이 화면의 중앙에 여백을 주어 쓸쓸하고 공허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림 66> Cycle No.2.
The Celebration of Svantovít
(1912)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그림 67> Cycle No.14.
The Defence of Sziget by
Nikola Zrinski (1914)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그림 68> Cycle No.18.
Jan Amos Komenský
(1926) (출처: <http://www.muchafoundation.org/gallery/themes/theme/slav-epic>, 검색일자: 2018. 12.08)

IV.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

현대패션은 보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패션과 결합시켜 예술에서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 중 회화작품은 색채, 형태, 구도 등 패션에 적용하기 적합한 조형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현대패션에 응용되어 왔으며, 이는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패션의 역사속에서 회화작품이 패션과 결합되어 나타난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1960년대에 이브 생 로랑(Yve Saint Laurent)이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그림 69>의 미니드레스를 말할 수 있다. 이 드레스는 실크소재에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 ‘타블로 I’ 이미지를 그대로 프린트하여 제작한 것으로 작품에 나타난 직선들과 R, B, W, Bk의 색채 조합이 주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이브 생 로랑 특유의 모던한 디자인과 어우러져 대중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림 69> Yve saint laurent (1965-1966) (출처: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4). *Yves Saint Lauren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99)



<그림 70> Yve saint laurent (출처: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4). *Yves Saint Lauren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96)



<그림 71> Yve saint laurent (출처: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4). *Yves Saint Lauren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96)

또한 이브 생 로랑은 몬드리안의 작품을 비롯해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폴 고갱 (Paul Gauguin),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미지들은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림 72>와 같이 앙리 마티스의 ‘The Snail’(그림 73)과 ‘The Sheaf’(그림 74)의 모티브를 플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플라주 기법은 기존의 작품이 갖고 있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모티브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어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2> Yve saint laurent (1965-1966) (출처: <https://emmarevol.wordpress.com/2016/01/31/from-africa-to-matisse/>,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73> Henri Matisse, The Snail (1952) (출처: <https://emmarevol.wordpress.com/2016/01/31/from-africa-to-matisse/>,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74> Henri Matisse, The Sheaf (1953) (출처: <https://emmarevol.wordpress.com/2016/01/31/from-africa-to-matisse/>, 검색일자: 2018.12.08.)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앤디워홀(Andy Warhole)은 다채롭고 원색적인 색감의 표현 특성을 보이는 팝아트를 통해 다양한 패션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는 <그림 76>과 <그림 7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베르사체와 비비안 탐이 각각 <그림 75> <그림 77>에 나타난 앤디워홀의 작품을 플라주 기

법을 통해 보다 화려하고 키치한 감성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6>의 Versace 2018 Collection은 앤디워홀의 'Marilyn Monroe'라는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를 의상 전면에 다양한 색상 및 크기로 중첩, 반복 배열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또한 화려하고 극적인 색감의 특징을 갖는 베르사체 특유의 감각과 어우러져 본래의 'Marilyn Monroe'가 갖는 합키치하고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림 78>의 Vivienne Tam 1992 Collection은 <그림 77>의 'Mao' 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작품에 나타난 인물을 다양한 컬러 및 형태로 재구성 및 이를 반복 배열하여 화려하면서도 키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앤디워홀의 작품은 본래의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팝아트적인 이미지로 인해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함께 플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화려하게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보여졌다.



<그림 75> Andy Warhol, Marilyn Monroe (1962-1967) (출처: <http://harpersbazaar.co.kr/fashion/디자이너의-인스피레이션>,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76> Versace (2018) (출처: <http://harpersbazaar.co.kr/fashion/디자이너의-인스피레이션>,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77> Mao (1973)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472174342157605896/>,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78> Vivienne Tam (1992) (출처: Andrew Bolton, 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 p. 134)

또한 그래피티 회화의 작가로 잘 알려진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의 회화를 응용한 디자인도 현대 패션에 자주 나타났는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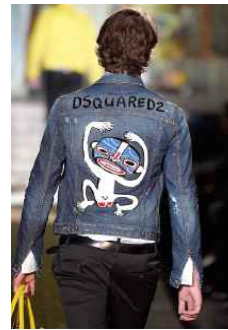
79>의 Donna Karan 2015 S/S Collection을 보면 바스키아의 작품에 나타난 레터링 이미지와 굵은 선을 재해석하고 작품의 색채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로 재구성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그림 80>의 Valentino 2015 S/S Collection의 경우 바스키아 작품을 그대로 패션에 적용하여 디지털 프린트 또는 망사소재와 스팅글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림 81>의 Dsquared 2015 S/S Collection에서는 바스키아의 회화작품에 나타난 모티브 일부를 추출하여 셔츠 또는 데님에 유아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이처럼 거친 선과 레터링, 그리고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 및 원색의 풍부한 표현의 특징을 갖는 그의 작품은 주로 레터링 이미지를 강조하여 나타내거나 작품에서 추출한 모티브 일부를 강조한 형태로 재해석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79> Donna Karan, 2015 S/S Collection (출처: www.style.com)



<그림 80> Valentino, 2015 S/S Collection (출처: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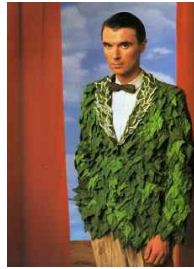
<그림 81> Dsquared, 2015 S/S Collection (출처: www.style.com)

초현실주의의 대표 작가 중 하나인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회화 작품 또한 패션디자인에서 자주 응용되어 나타났다. 이는 그의 작품이 갖는 초현실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의미와 기능, 용도의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탈시키고 이를 통한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하는 기법인 데 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자주 등장하였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또는 모티브가 되는 이미지를 의상 전면에서 프린팅하여 구성하거나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

에 변형을 주어 표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희적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그림 82> Rene Margritte 보물섬 (1937) (출처: Suzi Gablik, Rene Magritte, 1990)



<그림 83> Adelle Lutz, jacket&wood clacks (1986)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45387908715202530/?lp=true>, 검색일자: 2018.12.08.)



<그림 84> Rene Margritte, 장록 속의 철학 (1947) (출처: Suzi Gablik, Rene Magritte, 1990)



<그림 85> Body coat (1960) (출처: Richard Martine, Fashion and Surrealism, p. 68)

먼저 <그림 82>에 나타난 ‘보물섬’이라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티브는 <그림 83>의 아델 루츠의 자켓과 팬츠에서 자연물 이미지로 변화시켜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림 84>에 나타난 ‘규방의 철학’이라는 작품은 의상 전면에 작품에 나타난 신체 일부분을 프린트하거나 입체적 조형물로 표현하여 본래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변형시켜 표현하였다(그림 85).

이 밖에도 폴 세잔(Paul Cezanne)의 작품(그림 86)에서 보여지는 어릿광대의 옷에 표현된 다이아몬드 문양을 오버핏의 코트에 그대로 적용시켜 재해석한 디올의 작품과(그림 87), 빈센트 반 고흐의 다양한 작품을 의상 전면에 프린트하여 응용한 Rodarte 2012 S/S Collection(그림 88, 89), 그리고 프랑스의 장 밥티스트 카미유 코로(Jean Baptiste Camille Corot)의 초상화(그림 90)에 등장하는 꽃 모티브와 색상을 응용하여 패션디자인에 표현한 Delpozo 2014 S/S Collection (그림 91)을 통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화 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패션디자인에 응용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6> Paul Cezanne, Pierrot and harlequin (1888) (출처: <http://image.baid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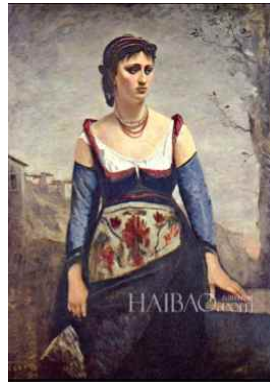
<그림 87> Dior, 1995 F/W (출처: The Inspiration and Influence of Impressionism at the House of Dior, p.102)



<그림 88> Rodarte, 2012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89> Rodarte, 2012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90> Jean Baptiste Camille Corot, 여성의 초상화 (출처: <http://www.haibao.com>)



<그림 91> Delozo,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

이와 같이 회화작품을 패션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화작품을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과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에 그대로 사용되어 나타나거나 회화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 또는 꽃 등의 사물들을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일부를 의상에 응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를 반복배열, 중첩, 과장, 재배열 등의 방법을 통한 꼴라주 기법으로 변형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데 페이즈망 기법과 같은 표현기법을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예술성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회화작품에 나타난 선과 색채, 그리고 형태 및 구도 등과 같은 조형적 특성은 의상의 디테일 및 프린팅 등 다양한 방법 및 요소로 응용될 수 있으며, 디자이너가 회화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재구성 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화작품을 응용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표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작품 제작 및 해설

5.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하고 앞서 분석한 알폰스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총 8벌의 의상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작품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타일 디자인의 모티브는 알폰스 무하의 작품들 중 본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세련된 이미지의 캐주얼웨어 표현이 가능한 ‘옴 담배종이 포스터’,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과 장식패널 ‘예술’을 활용하였다. 또한 ‘옴 담배종이 포스터’,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의 작품 속 인물들과 레터링 이미지를 Adobe Photoshop CC의 활용을 통해 배경과 분리하고 이를 풀라주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중첩, 반복배열, 재배열의 방법으로 텍스타일 패턴을 제작하였으며,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와 ‘예술’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텍스타일 패턴을 제작하였다.

둘째, Adobe Photoshop C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을 전사지에 전사잉크로 프린팅하고, 이를 원단에 압착 가열하여 전사하는 DTP (Digital Textile Printing) 방식을 활용하여 텍스타일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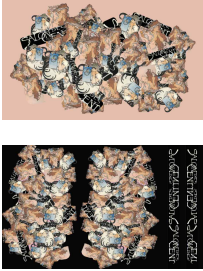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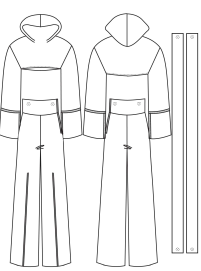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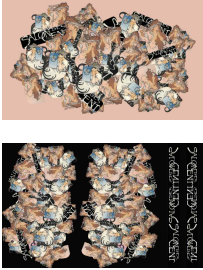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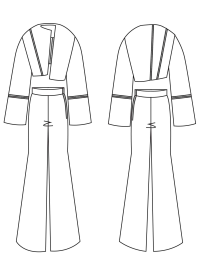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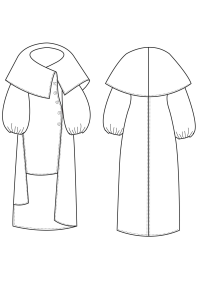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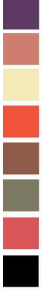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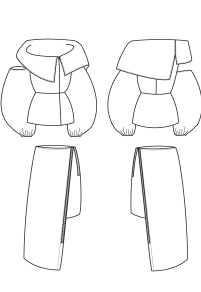

셋째, 의상의 콘셉트는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작품에 나타난 뚜렷하고 두꺼운 외곽선의 인물 표현과 파스텔 톤의 다채로운 색감, 그리고 레터링에서 느껴지는 만화적인 느낌과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한 이미지와 장식패널에서 보여지는 화사한 색채표현 및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스트리트 캐주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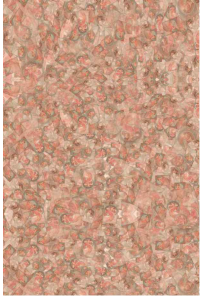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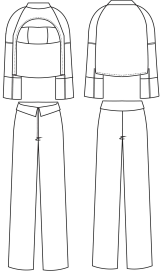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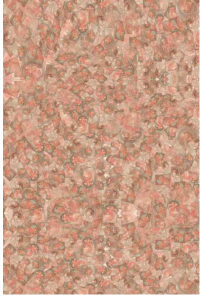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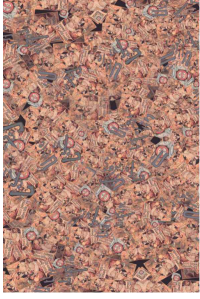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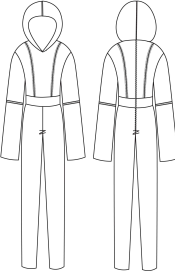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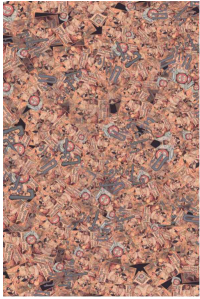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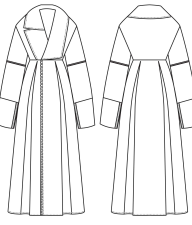

스타일(Street Casual Style)과 페미닌(Feminine)한 요소를 혼합한 트렌디한 감성의 룩을 제작하였다.

소재는 두께감이 느껴지는 오버 핏의 실루엣과 뚜렷한 컬러의 표현이 가능한 네오프렌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소매, 후드, 바지, 스커트, 상의 등에 플라스틱 장식지퍼를 사용함으로써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웨어를 표현하였다. 컬러는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서 보여지는 P, R, Bk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다양한 톤의 R, G, Y, B 색상과 다채로운 색감이 보여지는 무하의 작품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4개의 아우터와 5개의 하의, 4벌의 상의와 1벌의 점프수트 총 14점의 아이템을 제작하여 총 8벌의 의상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 제작 과정에 따라 알폰스 무하 작품을 활용한 8작장의 제작 계획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작품제작 계획

	소재	색채	텍스타일	도식화	스타일화
작품 I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작품 II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작품 III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작품 IV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p>작품 V</p>	<p>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p>				
<p>작품 VI</p>	<p>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p>				
<p>작품 VII</p>	<p>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p>				
<p>작품 VIII</p>	<p>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p>				

5.2 작품 및 작품해설

1) 텍스타일 패턴 제작

작품을 구성하는 텍스타일 패턴은 무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성 중 뚜렷한 윤곽선 및 인물들의 다채로운 표현에서 느껴지는 만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색이 바랜 듯 연하고 부드럽게 표현된 색채에서 느껴지는 빈티지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텍스타일 패턴의 모티브는 앞서 언급한 특징들이 잘 나타난 무하의 작품들 중 본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의 표현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6작품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작품은 ‘옴 담배종이 포스터’,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 ‘르페브르 위털 삼페인 과자 포스터’,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디자인’과 ‘예술’에 나타난 인물 및 레터링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꼴라주 기법을 통해 반복, 중첩 및 재배열하여 캐주얼 하면서도 페미닌한 이미지의 텍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른 텍스타일 패턴 모티브 도출 과정은 <표 2>와 같다.

작품 I, 작품 II에 사용된 텍스타일 패턴 A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lt 색조의 R 색상과 Bk 색상을 바탕으로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와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를 위한 디자인’에 등장하는 인물 및 레터링을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한 인물과 레터링 모티브를 다양한 각도 및 크기로 중첩시키고 이를 반복배열 하여 텍스타일을 구성하였으며, 이때 무하의 포스터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 뚜렷한 검은 윤곽선을 강조, 이를 꼴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여 만화의 포스터와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III, 작품 IV에 사용된 텍스타일 패턴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v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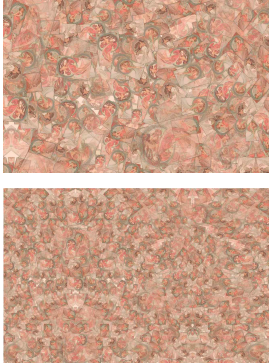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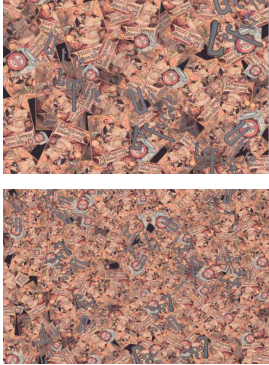
조의 P색상을 바탕으로 ‘옴 담배종이 포스터’,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및 레터링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한 인물과 레터링 모티브를 다양한 각도 및 크기로 중첩 및 반복배열 하여 텍스타일을 구성하였으며, 이때 플라주 기법과 무하의 포스터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 뚜렷한 검은 윤곽선을 살려 팝아트와 만화의 포스터와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V, 작품 VI에 사용된 텍스타일 패턴은 무하의 장식패널 시리즈 중 ‘예술’에 등장하는 4개의 패널을 각각 다양한 크기와 각도, 그리고 투명도에 변화를 주고 이를 자유롭게 중첩 및 반복배열 하여 올오버 패턴으로 텍스타일을 구성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러는 본래의 무하 작품이 갖는 화사하고 부드러우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카드가 바닥에 흩뿌려진 것과 같은 이미지의 구성을 통해 자유롭고 캐주얼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VII, 작품 VIII에 사용된 텍스타일 패턴은 무하의 포스터 작품 중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이미지와 포스터에 나타난 레터링 및 과자 패키지 이미지를 추출하여 주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이때 추출한 이미지를 각각 다양한 크기 및 각도, 그리고 투명도의 변화를 주고 이를 자유롭게 중첩 및 반복배열 하여 올오버 패턴으로 텍스타일을 구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의 색감에서 느껴지는 빈티지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캐주얼한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2> 패턴 모티브

	모티브	모티브 변형1	모티브 변형2
<p>패턴A (작품 I, 작품 II)</p>			
<p>패턴B (작품 III, 작품 IV)</p>			

<p>패턴C (작품 V, 작품VI)</p>			
<p>패턴D (작품 VII, 작품VIII)</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Lefèvre-Utile</p>	

2)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 I

- 아이템 구성: 후드 탑, 팬츠
- 색상: Bk, W, R, RY, B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92-96>의 <작품 I>은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와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를 위한 디자인’에 등장하는 인물 및 레터링을 주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 패턴을 의상전면에 올오버로 프린팅하여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무하의 포스터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 특성 중 하나인 두껍고 진한 윤곽선의 표현과 레터링 모티브가 주는 만화적인 느낌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아이템은 오버핏의 후드 탑과 하이웨이스트 팬츠로 구성하였다. 먼저 오버핏의 상의는 루즈한 기장의 드롭 소매와 크롭 기장의 짧은 탑을 통해 캐주얼하면서도 영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밝고 화려한 색상의 프린트를 상의 전면에 배치하여 만화 포스터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와 함께 소매 끝부분은 블랙 컬러로 배색을 주었으며, 배색을 준 소매 끝부분에는 블랙컬러의 두꺼운 플라스틱 장식지퍼를 달아 장식 기능을 더하였다. 또한 짧은 상의 기장에 맞추어 팬츠는 하이웨이스트에 전체적으로 루즈한 일자핏의 실루엣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허리부분은 블랙컬러로 배색을 주어 허리가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으며, 이와 동일한 색상의 원단으로 제작한 어깨띠를

각각 앞판과 뒷판의 팬츠에 스냅단추로 연결하여 캐주얼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I>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92-96>과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3>과 같다.



<그림 92> 작품 I 이미지 정면



<그림 93> 작품 I 이미지 측면



<그림 94> 작품 I 이미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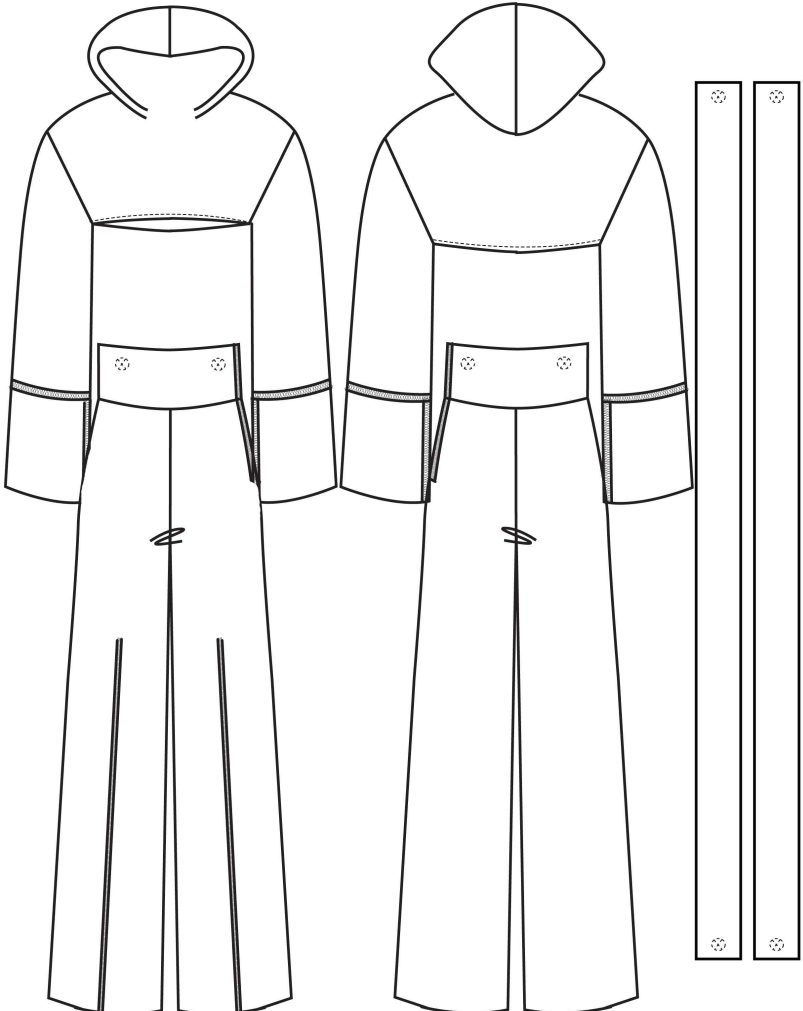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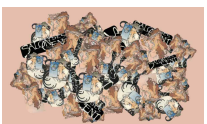


<그림 95> 작품 I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96> 작품 I 의 스타일링 이미지 II

<표 3> 작품 I 작업 지시서

작품 I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A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블랙 플라스틱 지퍼, 스냅 단추
			

(2) 작품Ⅱ

- 아이템 구성: 아우터, 팬츠
- 색상: Bk, W, R, RY, B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97-101>의 <작품Ⅱ>는 <작품Ⅰ>과 같이 ‘제 20회 살롱 데 상의 전시회 포스터’와 ‘살롱 데 상의 무하 전시회를 위한 디자인’에 등장하는 인물 및 레터링을 주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 패턴을 의상전면에 올오버로 프린팅하여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무하의 포스터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 특성 중 하나인 두껍고 진한 윤곽선의 표현과 레터링 모티브가 주는 만화적인 느낌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중첩 및 반복 배열하여 아우터에 프린팅하였다. 아이템은 오버핏의 아우터와 룩한 기장의 부츠 컷 팬츠로 구성하였다. 먼저 아우터는 의상 전면에 프린트를 넣어 화려한 이미지의 캐주얼웨어를 제작하였으며, 플라스틱 지퍼를 아우터 전면에서 후면까지 연결 배치하여 장식적 요소를 더하였다. 이때 소매의 끝 부분은 블랙컬러로 배색 포인트를 주었으며, 밝고 화려한 컬러의 패턴들과 대비되도록 하였고, 배색부분에는 두꺼운 블랙컬러의 플라스틱 장식지퍼를 달아 오픈 정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팬츠는 블랙색상의 프린트가 들어간 텍스타일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룩한 기장의 부츠컷 실루엣으로 제작하여 보다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 웨어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Ⅱ>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97-101>과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4>와 같다.



<그림 97> 작품Ⅱ 이미지 정면



<그림 98> 작품Ⅱ 이미지 측면



<그림 99> 작품Ⅱ 이미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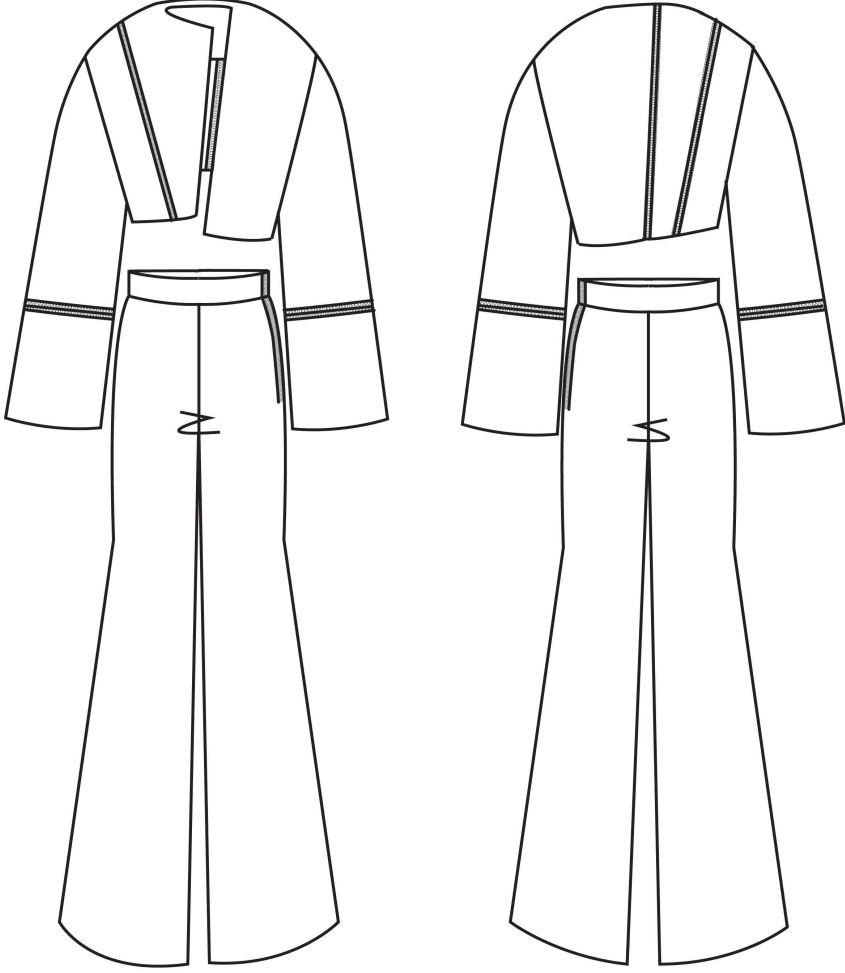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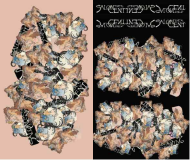



<그림 100> 작품Ⅱ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01> 작품Ⅱ 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4> 작품Ⅱ 작업지시서

작품Ⅱ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p>A</p> 	<p>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p>		<p>블랙 플라스틱 지퍼</p>

(3) 작품Ⅲ

- 아이템 구성: 아우터
- 색상: P, R, Y, RY, GY, Bk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102-106>의 <작품 Ⅲ>은 무하의 포스터 작품 중 ‘옻 담배종이 포스터’, ‘사이클 퍼펙타 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및 레터링 이미지를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제작한 텍스타일 패턴을 아우터 전면에 배치하여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 웨어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여성스러우면서도 과장된 실루엣, 그리고 무하의 포스터 작품의 조형적 특성 중 하나인 비대칭 구도를 의상에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팝아트적인 느낌을 주는 색감의 프린팅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아우터로 제작하였으나 원피스처럼 연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의 부분은 좌, 우 비대칭 형태의 실루엣을 보이는 큰 칼라와 부풀린 소매, 그리고 허리부분은 바디에 자연스럽게 피트 되도록 제작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스커트는 앞판에 각각의 길이가 다른 3장의 절개를 넣어 걸음에 따라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판은 짧게, 뒷판은 길게 디자인하여 비대칭 실루엣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절개는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Ⅲ>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102-106>과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5>와 같다.



<그림 102> 작품Ⅲ 이미지 정면



<그림 103> 작품Ⅲ 이미지 측면1



<그림 104> 작품Ⅲ 이미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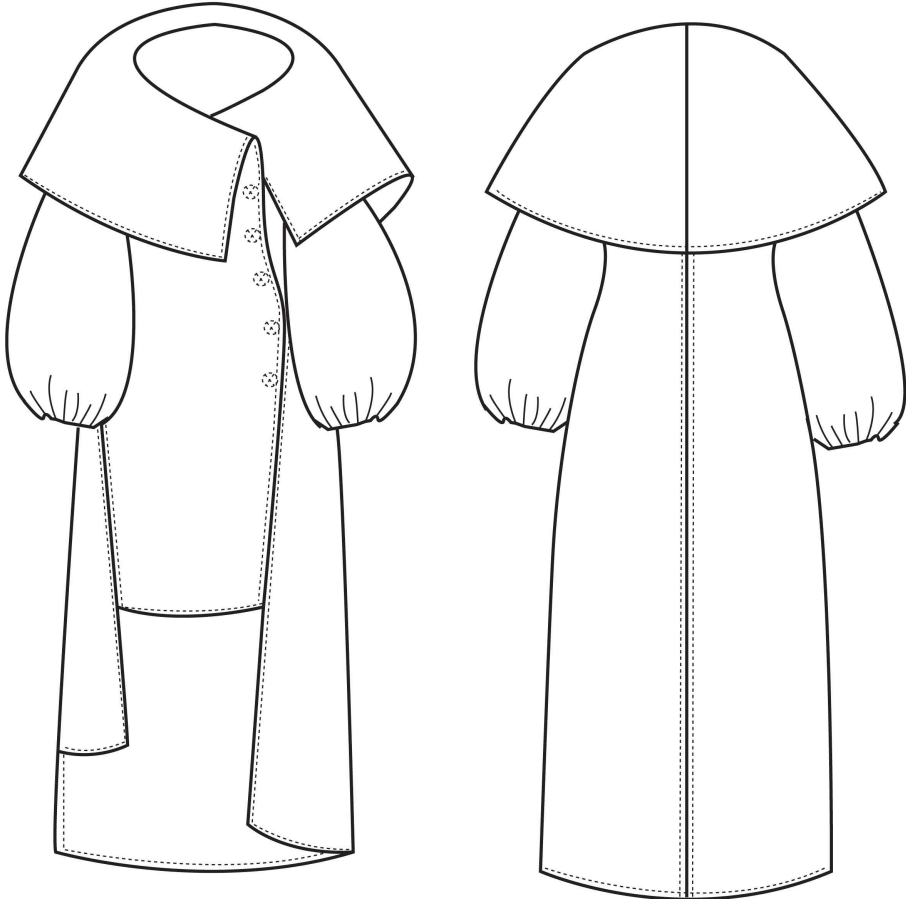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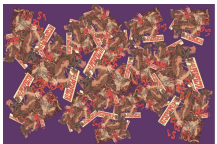


<그림 105> 작품Ⅲ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06> 작품Ⅲ 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5> 작품 III 작업지시서

작품 III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B	네오프렌		스넵 단추
	폴리 92%		
	스판 8%		

4) 작품Ⅳ

- 구성: 아우터, 스커트
- 색상: P, R, Y, RY, GY, Bk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107-112>의 <작품 Ⅳ>는 <작품 Ⅲ>과 같이 무하의 포스터 작품 중 ‘옴 담배종이 포스터’, ‘사이클 펌팩타 포스터’에 나타난 인물 및 레터링 이미지를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제작한 텍스타일 패턴을 아우터 전면 배치하여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 웨어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비구조적인 실루엣, 그리고 무하 작품의 조형적 특성 중 하나인 비대칭 구도를 의상에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팝아트적인 색감의 텍스타일 패턴을 아우터 및 스커트 전면 배치하여 여성스럽고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웨어로 표현하였다. 먼저 상의를 살펴보면 어깨까지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이를 구성하는 비대칭 형태의 칼라를 통해 독창적인 실루엣으로 표현하였으며, 자연스럽게 허리에 피트 되는 실루엣을 통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한 여밈 부분은 블랙컬러의 두꺼운 플라스틱 장식지퍼를 사용하여 캐주얼한 요소와 함께 실용성을 더하였으며, 한쪽 소매를 오프 숄더의 비구조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상의 아우터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무하의 작품에 볼 수 있는 비대칭적인 구도로 표현하였다. 또한 스커트의 경우 블랙의 솔리드 원단으로 제작한 H라인 스커트 위에 보다 긴 기장의 사선으로 떨어지는 랩 스커트를 한 겹 덧대고 이를 상의에 사용한 것과 같은 플라스틱 지퍼로 장식하여 캐주얼하면서도 페미닌 한 이

미지의 세미 캐주얼 룩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V>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107-112>와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6>과 같다.



<그림 107> 작품Ⅳ 이미지 정면



<그림 108> 작품Ⅳ 이미지 측면1



<그림 109> 작품Ⅳ 이미지 측면2



<그림 110> 작품Ⅳ 이미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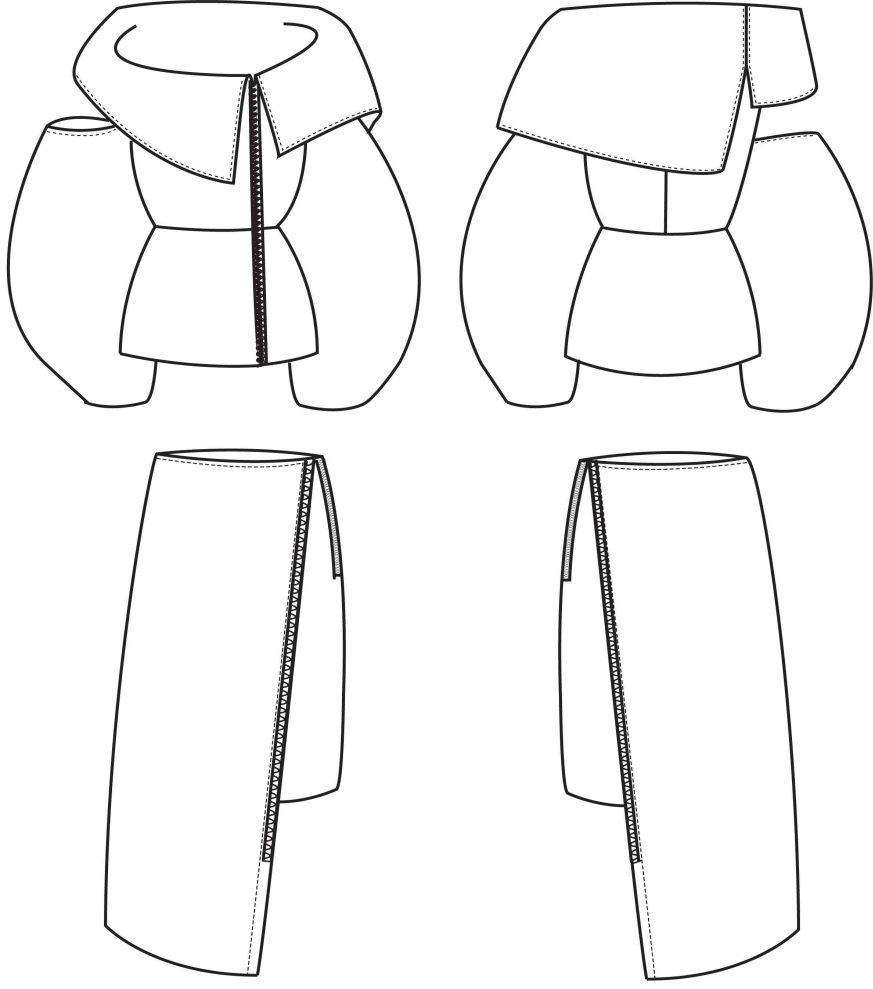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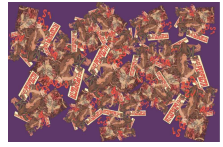


<그림 111> 작품Ⅳ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12> 작품Ⅳ 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6> 작품 IV 작업지시서

작품 IV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B	네오프렌		블랙 플라스틱 지퍼
	폴리 92%		
	스판 8%		

5) 작품 V

- 아이템 구성: 탑, 브라탑, 팬츠
- 색상: R, GY, G, RY, Bk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113-117>의 <작품 V>는 무하의 장식패널 시리즈 중 ‘예술’을 주 모티브로 사용하여 제작한 텍스타일 패턴을 상의 전면에 올오버 패턴으로 배치하여 제작하였으며, 아이템은 탑, 브라 탑, 팬츠로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네 개의 예술’에 나타난 화사하고 화려한 색감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상의의 경우 앞판은 가슴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길이로 구성하고, 이와 반대로 뒷판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케이프로 제작하여 비대칭적인 실루엣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어깨선과 넥라인, 밑선 등을 모두 곡선으로 처리하여 무하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소매는 드롭 숄더의 루즈핏 실루엣으로 제작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텍스타일과 캐주얼한 디자인이 혼합된 독특한 스트리트 캐주얼 감성을 표현하였다. 여기에 소매 끝부분과 넥 부분에는 블랙 컬러로 배색 포인트를 주어 밝은 톤의 레드, 옐로우 컬러와 대비를 주었으며, 소매 곳곳에 블랙컬러의 두꺼운 플라스틱 장식지퍼를 연결하여 지퍼의 오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상의의 브라 탑은 위의 탑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텍스타일을 사용하여 보다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을 더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하의는 하이웨이스트의 와이드 룻 팬츠를 블랙의 솔리드 원단으로 제작하여 자칫 상의의 화려한

패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과한 이미지를 융화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작품 V>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113-117>과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7>과 같다.



<그림 113> 작품Ⅳ 이미지 정면



<그림 114> 작품Ⅳ 이미지 측면



<그림 115> 작품Ⅳ 이미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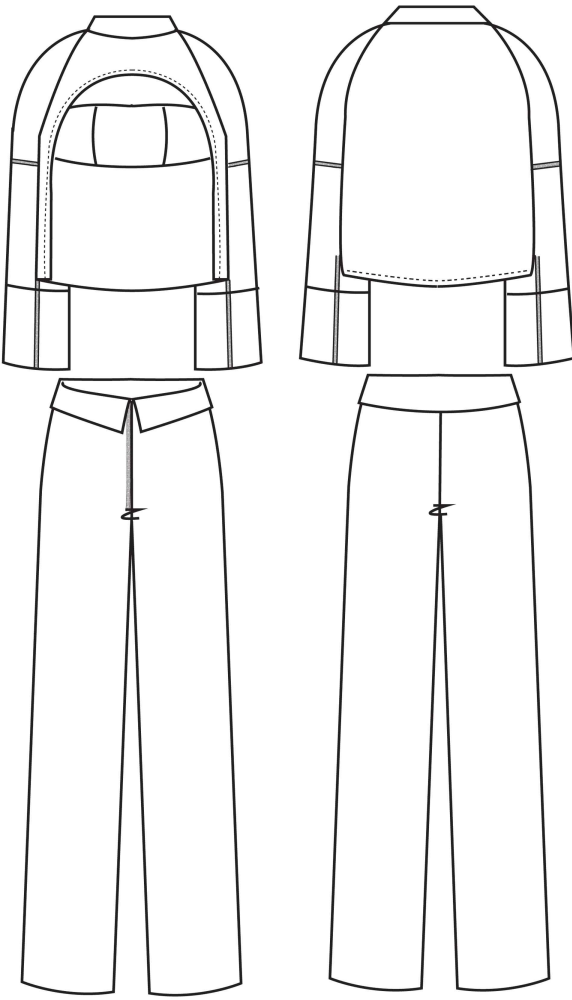




<그림 116> 작품Ⅳ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17> 작품Ⅳ 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7> 작품 IV 작업지시서

작품 IV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C	네오프렌		블랙 플라스틱 지퍼
	폴리 92% 스판 8%		

6) 작품VI

- 아이템 구성: 탑, 스커트
- 색상: R, GY, G, RY, Bk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118-122>의 <작품 VI>는 <작품 V>와 같이 무하의 장식패널 시리즈 중 '예술'을 주 모티브로 사용하여 제작한 텍스타일 패턴을 상의와 하의 전면에 올 오버 패턴으로 배치하여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예술'에 나타난 화사하고 화려한 색감과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아이템은 탑과 스커트 2피스로 구성하였다. 먼저 상의는 보트넥에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5부기장의 소매로 제작하였는데, 이때 앞판은 뒷판보다 짧게 제작하여 언발라스하게 표현하였고 뒷판은 어깨부분에 케이프를 연결하여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스타일의 룩을 완성하였다. 또한 소매의 뒷부분에는 트임을 넣어 활동성 있게 제작하였으며, 걸음에 따라 뒷판의 케이프와 함께 자연스럽게 훑날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H라인 실루엣의 스커트는 한쪽이 더 길게 내려오는 비대칭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앞판을 총 3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절개부분에 지퍼를 사용하여 활동성과 함께 지퍼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커트의 중앙부분은 블랙 컬러로 배색을 주어 시선을 가운데로 집중하여 이를 통해 보다 날씬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었으며, 상의의 앞판에는 사선으로 절개를 주고 이를 지퍼로 연결하여 장식성을 더하였다. <작품 VI>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118-122

>와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8>과 같다.



<그림 118> 작품Ⅵ 이미지 정면



<그림 119> 작품Ⅵ 이미지 측면



<그림 120> 작품VI 이미지 후면



<그림 121> 작품Ⅵ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22> 작품Ⅵ 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8> 작품 VI 작업지시서

작품 VI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C	네오프렌		블랙 플라스틱 지퍼
	폴리 92% 스판 8%		

7) 작품Ⅶ

- 아이템 구성: 점프슈트
- 색상: mGy, B, R, RY, RP, RP, Bk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123-127>의 <작품 Ⅶ>은 무하의 포스터 작품 중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이미지와 포스터에 나타난 레터링 및 과자 패키지 이미지 주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 패턴을 작품 전면에 올오버 패턴으로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르페브르 위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의 색감과 레터링 모티브에서 느껴지는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아이템은 캐주얼한 감성의 후드가 달린 오버 핏 점프슈트 1피스로 구성하였다. 먼저 작품의 상의 부분을 살펴보면 어깨와 허리부분에 절개를 주고 이를 플라스틱 지퍼로 연결하여 장식하였으며, 절개가 들어간 부분은 블랙컬러로 배색하여 슬림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더하였다. 또한 통이 넓고 긴 소매와 넉넉한 사이즈의 후드를 통해 캐주얼 감성의 디자인을 표현하였으며, 이때 양쪽 소매의 중간에 절개 및 장식지퍼를 연결하여 지퍼의 오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상체의 후드부터 등판까지는 두꺼운 플라스틱 지퍼를 활용하여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착용이 쉽도록 제작하였으며, 후드 부분의 지퍼는 등판의 지퍼와 분리되게끔 제작하여 후드지퍼를 열었을 때 솔 카라와 같이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하의 부분은 자연스럽게 피트 되는 일자 실루엣으로 구성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감각의 캐주얼 룩으로 디자인하였다. <작품 VII>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123-127>과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9>와 같다.



<그림 123> 작품Ⅶ 이미지 정면



<그림 124> 작품Ⅶ 이미지 측면



<그림 125> 작품Ⅶ 이미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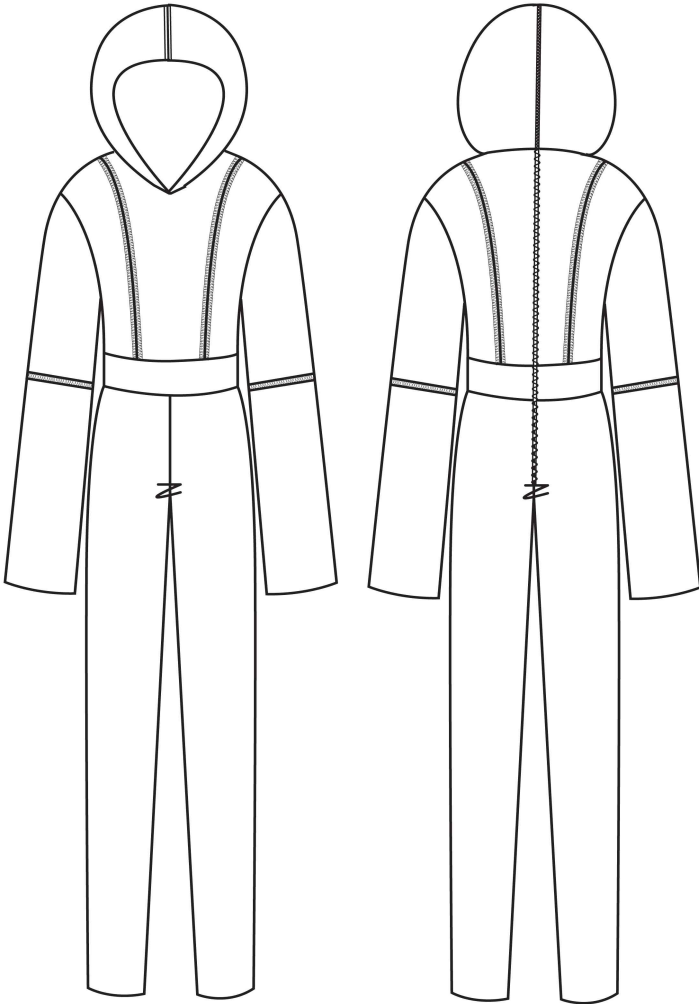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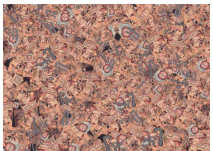


<그림 126> 작품Ⅶ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27> 작품Ⅶ 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9> 작품Ⅶ 작업지시서

작품Ⅶ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D	네오프렌		블랙 플라스틱 지퍼
	폴리 92%		
	스판 8%		

8) 작품Ⅷ

- 아이템 구성: 아우터
- 색상: mGy, B, R, RY, RP, RP, Bk
- 소재: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 기법: DTP(Digital Textile Printing)

·작품해설

<그림 128-132>의 <작품 Ⅷ>또한 <작품 Ⅶ>과 같이 ‘르페브르 워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 이미지와 포스터에 나타난 레터링 및 과자 패키지 이미지 주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 패턴을 작품 전면에 올오버 패턴으로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르페브르 워털 샴페인 과자 포스터’의 색감과 레터링 모티브에서 느껴지는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세련된 감성의 캐주얼 웨어를 제작하였다. 아이템은 오버핏의 롱코트 아우터 1피스로 구성하였으며, 무하의 포스터 작품에서 보여지는 구도특성과 같이 비대칭과 대칭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때 상의 부분은 양쪽의 라펠을 비대칭 형태로 구성하여 독창적인 느낌을 표현하였고 하의 부분은 동일한 위치에 맞추름을 주어 좌·우가 대칭된 형태로 구성되게끔 제작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의 A라인으로 구성하였고 코트의 하단 부분엔 맞추름을 주어 풍성한 부피감을 주었으며, 맞추름의 안쪽과 라펠, 소매의 끝부분을 블랙컬러로 배색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드롭 솔더로 디자인한 소매의 중심과 끝부분에 각각 가로, 세로로 지퍼 디테일을 주어 장식 기능과 함께 지퍼의 오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실용성을 더하였다. <작품 Ⅷ>에 대한 완성 작품은 <그림 128-132>와 같으며, 작업지시서는 <표 10>과 같다.



<그림 128> 작품Ⅷ 이미지 정면



<그림 129> 작품Ⅷ 이미지 측면



<그림 130> 작품Ⅷ 이미지 후면



<그림 131> 작품Ⅷ 의 스타일링 이미지 I



<그림 132> 작품Ⅷ의 스타일링 이미지Ⅱ

<표 10> 작품Ⅷ 작업지시서

작품Ⅷ			
			
텍스타일	소재	컬러	원부자재
D	네오프렌 폴리 92% 스판 8%		블랙 플라스틱 지퍼
			

VI. 결 론

현대의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회화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과 패션을 결합시켜 차별화된 감성과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알폰스 무하는 체코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이자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만의 독보적인 감각과 스타일로 인테리어, 패션, 악세서리 디자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으로 높은 장식적 특성을 갖으며 이는 그의 작품이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사용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폰스 무하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아르누보 양식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래픽아티스트들의 활동상, 그리고 세기말 파리의 여성상으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그의 회화작품인 포스터, 장식패널, 슬라브 서사시에 대한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형태, 색채, 구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알폰스 무하 작품의 패션디자인 응용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하의 포스터 작품 84점에 나타난 형태 특성은 무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인물 또는 주제와 이를 표현한 풍부한 장식요소들, 그리고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선의 표현 및 레터링의 활용이 나타났다. 색채 특성의 경우 포스터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s, lt, ltg 색조의 R, Y, RY, G, B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한 부고섬세한 이미지 표현이 특징적으로 보여졌다. 또한 구도특성은 화면상단부에

레터링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중심에 위치한 여인의 머리, 그리고 그 뒤를 장식하고 있는 원형 또는 반원의 형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꽃과 모자이크, 화려하게 장식된 식물문양이 있으며, 주 모티브가 되는 여인의 전신이 수직으로 배치된 구도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무하의 장식패널 작품의 32점의 형태적 특징은 장식패널을 구성하는 일러스트 중앙에 주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있고 그 주위를 식물들이 화려하게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이는 유동적이고 섬세한 유동적인 곡선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색채 특성은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색채들이 작품을 구성하는 복잡한 모티브들과 어우러져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대체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p, s, b, lt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다. 또한 여기에 W 색상과 파스텔 톤의 R, Y, BG, GY, PB와 같은 색상들의 배색을 통해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무하의 장식패널에서 보여지는 구도특성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인물을 다양한 포즈를 통해 비대칭으로 구성하고, 그 인물의 뒤로 보이는 배경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여 시각적인 안정감과 함께 독특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셋째, 슬라브 서사시 20점의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형태특성은 기존에 무하가 주로 사용하던 채색 석판화와 수채화가 아닌 템페라와 유화를 사용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났던 뚜렷하고 간결한 윤곽선의 표현이 아닌 얇고 부드러운 선의 사용표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채특성은 주로 dkg, g, d 톤의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어두운 B, PB, P, BG 색상의 사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구도 특성의 경우 작품 속 중심이 되는 인물과 배경이 되는 인물을 명암, 또는 색채, 형태 등에 차이를 주거나 화면에 중간에 사물을 배치하여 화면을 분할하는 구도특성을 보였다.

또한 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피에트 몬

드리안과 앤디워홀, 르네 마그리트, 장 미셸 바스키아 등과 같은 화가들의 회화작품들이 패션디자인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회화작품을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과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에 그대로 사용되어 나타나거나 회화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 또는 꽃 등의 사물들을 주 모티브로 추출하여 일부를 의상에 응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를 중첩 및 반복배열, 중첩, 과장, 재배열 등의 방법을 통한 꼴라주 기법으로 변형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데 페이즈망 기법과 같은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예술성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작품 중 6작품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한 꼴라주 기법을 작품에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4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작품들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림을 구성하는 명확하고 힘 있는 윤곽선과 그만의 독특한 색채표현에서 느껴지는 만화적이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페미닌 하면서도 캐주얼한 감성의 패션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무하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대칭 구도를 디자인에 응용하여 전체적으로 비대칭을 이루는 실루엣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제작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의 연구개발에 있어 실용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 및 패션디자인 개발에 무한한 디자인의 원천을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과 패션의 성공적인 결합을 통한 다양한 패션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순천 (2009). 알폰스 무하의 사라 베르나르 연극 포스터. *디자인학연구*, 22(5). p.145-158.
- 김난희 (2016). *알폰스 무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아르누보적 헤어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희, 권기형 (2015). 알폰스 무하 작품을 모티브로 한 헤어 장신구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 9(3), 7-17.
- 김은혜 (2012). *성공한 예술가의 초상, 알폰스 무하*. 서울: 켈치그라퍼.
- 김은혜 (2013. 8). *예술의 전당 월간정보지*.
- 김희곤 (2014). *스페인인 가우디다: 스페인의 뜨거운 영혼, 가우디와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파주: 오브제: 다산북스.
- 박소정, 한지수 (2014).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의 표현 특성에 의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 작품의 표현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41(-), 35-46.
- 신성림 (2002). *클림트, 황금빛 유혹*. 서울: 다빈치.
- 신인수, 제윤 (2001). 아르누보 시대의 직물에 나타난 문양에 관한 연구. *생활자원개발연구*, 3(-), 127-146.
- 이동민 (2005). *알폰스 무하와 사라베르나르*. 서울: 도서출판 재원.
- 이미경 (1991). *아르누보 양식에 나타난 무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재천 (1997). *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 19세기말 포스터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재천 (1997). 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 19세기말 포스터 작품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17(-), p.269-322.
- 우현지 (2014). *알폰스 무하의 회화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사라 (2001).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 식물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숙 (2003). *알폰스 무샤(ALPHONSE MUCHA)의 작품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Textile design)연구 : 패션소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희 (1988).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꽃과 유기적인 곡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초 (2015). *알폰스 무하 작품을 응용한 3D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우진 (2017). *알폰스 무하*. 서울: 책우리.
- 장화진 (1979), *현대미술사*. 서울: 형설출판사.
- 정수안 (2015). *아르누보 양식을 통한 여성이미지 표현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식 (2005). *알폰스 무하*. 서울: 도서출판 재원.
- 컬처앤아이리더스 (2016). *알폰스무하: 모던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 서울:컬처앤아이리더스.

국외문헌

- Dior Impressions (2013). *The Inspiration and Influence of Impressionism at the House of Dior*. Rizzoli International Oublications Inc.,

Rechard Martin (1989). *Fashion and Surrealism*. Thames and Hudson.
Yves Saint Laurent (1984). *Yves Saint Lauren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Zurich: Frohlich & Kaufmann.
Andrew Bolton (2015). *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번역서

Ann Ferebee (1983). 유근준 역, *디자인의 역사: 빅토리아 시대에서 현대까지*, 서울: 도서출판 청우.
June Marsh (2012). 김정은 역, *패션의 역사: 크리스티앙 디오르부터 마크 제이콥스까지 현대 패션의 모든 것*. 서울: 시공사.
Renate Ulmer (2005). 이원제 역, *알폰스 무하*. 서울: 마로니에북스.
Suzi Gablik (2000). 천수원 역, *Rene Magrite*. 서울: 시공사

기타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무하재단, <http://www.muchafoundation.org>
보그코리아, www.vogue.com
스타일닷컴, www.style.com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이미지바이두, <http://www.baidu.com>
월드프레스, <https://emmarevol.wordpress.com>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

하이바오, <http://www.haibao.com>

하퍼스마자, <http://harpersbazaar.co.kr>

ABSTRACT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Using Alphons Mucha's Works

Shin Ha Ram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s science technology has developed such as AI, 3D printer, Big Data, and augmented reality, the fashion industry is now able to develop designs that meet the needs of consumers in more diverse and convenient manners by using a computer. This has led to saving time and cost while enhancing functions and convenience; the need for design that implies artistic value and emotion that only humans can express has arisen. In this context, the works of Alphonse Mucha, who led Art Nouveau style, one of the arts making up European art history, have unique styles and splendid ornament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have not been developed enough to be applied to fashion desig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life and works of Alphonse Mucha, who is called as the master of Art Nouveau style, and developed textile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his painting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ucha's posters show figures or themes expressed by re-interpreting with Mucha's unique style, decoration elements that express them, the expression of clear and concise lines, and the use of lettering. Color characteristics, however, was found to b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sters, but generally Y, YR, GY colors of p, s, b, and lt tones were mostly used, which features the tender and sophisticated way of expressing images. It was examined that Mucha located lettering at the top, a woman's head at the center of the poster below the lettering, a circular or semicircular shape decorating the back with flowers, mosaic that consist the shape, and botanical patterns decorated in a fancy way.

Second, the formative feature of Mucha's decorative panels is that there is a figure as the main motive in the middle of the illustration which constitutes the decorative panel with plants surrounding the figure. It was found that it was expressed through a delicate and fluid curve, which gives a more ornamental and dynamic image. In addition, the color characteristics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cheery and bright colors combined with complex motifs that make up the work, using p, s, b, lt tones to give a gentle and feminine images.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 shown on the decorative panel of the scarf is that the work is asymmetrical with the pose in the center of the panel, and the background behind the figure is arranged symmetrical to express the unique feeling with visual stability.

Analyz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Slav epic, it was shown that Mucha used tempera and oil to make the contours thin and gentle, not clear and concise contours as shown in his other works. Tones of dkg, g, dkGy, and d were mainly used; the color use of dark B, PB, P

and BG was conspicuous. In the case of composition characteristic, the works show the characteristic of composition dividing the canvas by giving a difference in contrast, color, or form to the central figure or the one at the backdrop or drawing an object at the center of the canvas to divide the canvas.

The cases of fashion design applying painting work were also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painting works of artists were applied to fashion design in various ways. Painting works can be used as they are in design works with a designer's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senses; objects such as figures or flowers seen in the painting works are extracted as main motifs and some of them are applied in costumes; the images are transformed with collages as repeatedly arranged, overlapped, exaggerated, and rearranged to express various images.

The study selected six artworks of Alphonse Mucha that wer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the motifs were reconstructed with collages such as overlapping, repeated arrangement, and rearrangement to produce five textile design works. The work is based on the feminine image of his work as well as the cartoon and vintage image that is represented in the previously produced textiles; the asymmetrical elements seen in the poster artworks and the decorative panels are applied to the costume to give a trendy look with Street Casual and Feminine styles are blended.

It is expected that production of the costume can accommodate both practical and artistic needs in researching individualistic and creative fashion design that the modern society pursues, give an opportunity to share infinite sources of design for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and increase artistic and academic values of design through combining art and fashion.